

옐로우시티

강성 21세기

가을호 Vol.91

然樓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경 필암서원 축





한 폭의 명화같은 감동

옐로우시티 장성



장성군
Jangseong

contents



- 4 기획특집 I 2019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 16 기획특집 II 다시 울린 장성역 KTX 기적소리
- 22 기획특집 III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_ 필암서원
- 28 장성들여다보기
마을박람회 대상 ‘장성 황룡마을’
‘백암산’ 이름 찾기
‘푸드플랜’ 비전 선포
장성의 맛을 찾아라
장성사랑상품권
- 42 엘로우시티 장성
엘로우시티 장성을 디자인하다
– 안전도 UP! 삼서면 대곡사거리 회전교차로
– 세련미 UP! 장성군 농촌버스
– 이미지 UP! 장성군보건소

- 44 뉴 문불여장성
약수초, 황룡중, 장성고
- 48 장성인
김효석_대한석유협회 회장
- 50 우리마을 옛이야기 남면, 동화면, 진원면
- 54 장성아카데미 리뷰
마음으로 떠나는 야생화 여행_이유미(국립수목원장)
- 58 창작마당
與民同樂(여민동락)_우계 유백준
전원생활_김재현
- 60 장성체험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성군 공식
블로그에서 다양한
장성의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성의 소식을
더욱 빠르게
듣고 싶을 때



장성의 풍경을
더욱 생생하게
보고 싶을 때



QR코드를 스캔해
장성군 SNS에
접속해 보세요.



2019

• 장성 21세기 가을호

www.jangseong.go.kr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여러분의 글, 사진, 소식을 기다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 noproblem777@korea.kr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미래디자인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화 061) 390-7221

[무료구독신청] 메일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62 장성맛집

추어탕 맛집_통나무집, 호산식당, 곳간추어탕

64 장성카페

오래된 것이 주는 편안함과 따스함 '다향만리'

66 농특산물 소식

옐로우시티 황금사과

68 부자농촌

전국 최우수 사업소 선정_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70 촘촘복지

독감 예방 무료접종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준비 지원

72 미디어소통

SNS 서포터즈 취재일기

74 한방이야기

76 한컷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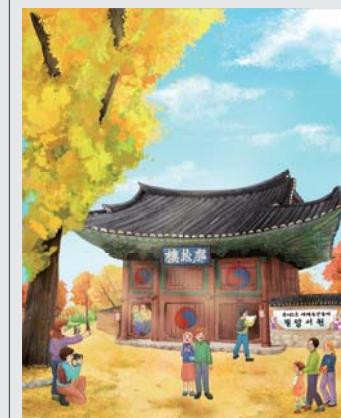
80 의정소식

84 우리 마을 이모저모

90 나눔마당

92 문화마당

94 알림마당



표지 이야기

이번 호 표지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의
짙어가는 가을 모습을 담았습니다.

발행처_ 장성군

발행인_ 장성군수 유두석

발행일_ 2019. 11. 15.

편집위원장_ 김종기

편집위원_ 김미순, 오원석, 박형동, 오늘푸른, 임효선, 신정숙

표지디자인_ 강가해(룩스미디어)

디자인 · 인쇄_ 지구인쇄출판사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대박으로 이끈

옐로우시티 장성

유 두 석 군수



사진출처 : 전남일보

“

꽃씨 뿌려
피우기까지

석 달 열흘
매일 새벽 5시

나의 일과는
황룡강에서
시작되었다.

”



세 번의 가을 태풍을 이겨낸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지난 3개월 간 나의 근무지는 황룡강이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황룡강을 찾아 군민과 함께 심은 해바라기와 뿌린 꽃씨들을 살폈다. 축제를 앞두고 연이은 두 번의 태풍은 그나마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초강력 태풍 ‘미탁’이 우리 지역에 통과한다는 뉴스에 개막 예정인 10월 1일 새벽, 나는 손전등을 들고 황룡강을 찾았다.

어쩔 수 없이 꽃들과 이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선 두 번의 태풍을 잘 견뎌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미탁’ 때문에 이제는 꽃들과 이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았다. ‘진인사(盡人事)’는 했으나 ‘대천명(待天命)’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황룡강 꽃송이 하나하나를 내 눈과 가슴에 새겼고 아린 마음으로 조용히 혼자만의 이별식을 한 것이다.

다음날 나는 매일 나가던 황룡강을 차마 나갈 수 없었다. 태풍이 할퀴고 갓을 꽃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기적이 일어났다.

다행히 ‘미탁’은 황룡강에 활짝 핀 가을꽃 위를 바람 없이 많은 비만 뿌리고 지나갔고 황룡강에는 100만 송이 해바라기들이 하나같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파란 하늘에는 군민의 간절한 염원에 축제를 축복하듯 선명하고 커다란 쌍무지개가 떴다.

그날 저녁 나는 황룡강을 찾아 꽃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거센 바람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어이 태풍을 이겨내고야만 황룡강의 10억송이 꽃들처럼, 나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KTX 재정차를 끝끝내 이뤄냈으며 황량했던 황룡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으로 가꾼 위대한 장성군민의 모습이 떠올랐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찾았다. 보람되고 감동이 넘치는 일이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이제부터 시작이다.

황룡강의 미래는 장성군민의 희망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황룡강을 찾는다.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 아침

축제의 대박을 알리는 ‘쌍무지개’가
장성의 하늘을 열었다.



10월 3일 아침, 장성 전역에 커다란 ‘쌍무지개’ 가 떴다.

태풍으로 애써 가꾸어온 꽃들이 상할 새라 밤새 마음을 졸였던 장성 군민은 평생 보기 드문 크고 선명한 무지개를 보고 감탄과 함께 축제의 대박을 예감했다.

해바라기와 무지개가 만들어낸 장관은 많은 사람들의 렌즈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2019년 10월 3일 아침, 장성군 사진가 협회 회원이 직접 촬영한 황미르랜드 [100만송이 해바라기 정원]에 뜬 ‘쌍무지개’

황룡강 십리 꽃길에 반하다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황룡강의 꽃, 2019년 가을 대한민국을 사로잡다!

세 차례의 태풍을 이겨낸 꽃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꽃들이 펼쳐진 황룡강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황룡강 꽃을 보고서는 한 번만 올 수는 없었어요” 관광객의 말이다.

그만큼 황룡강을 수놓은 10억 송이 꽃들은 많은 사람들을 반하게 했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찬바람이 부는 최근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이제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대한민국 대표 꽃축제를 넘어 세계를 유혹하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Garden)

아·름·다·워!

3.2km 황룡강 물줄기 따라 각각의 이야기를 담은 정원과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에서는 인증샷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황룡강에 오면 누구든 주인공이 되고 훗카이도와 두바이까지도 다녀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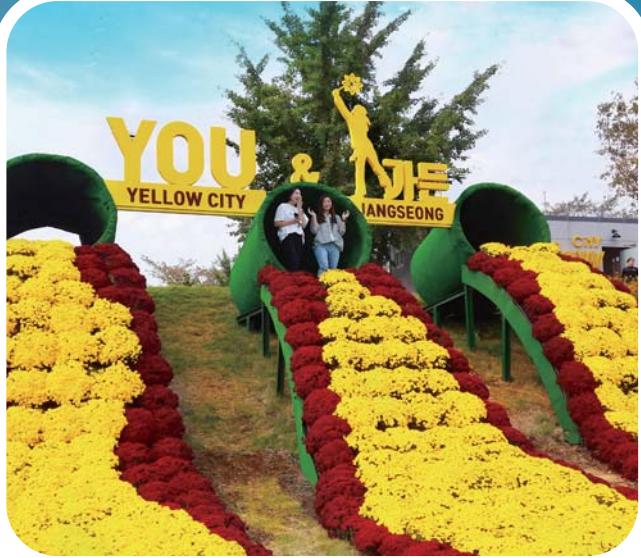


드레스가든

훗카이도 모리노 정원의
드레스 작품을 옮겨 놓은 가든

"나봉이 월봉보다 더 좋네~"

무지개 빛 꽃파도를 연출한 오색정원



유앤아이(YOU&I)가든

두바이 사막 속에 편
마라클 정원 작품을 재현한 가든
"미라클 가든보다 더 멋져~"



오색가든

홋카이도 토미타 팜을
옮겨 놓은 듯한 무지개 빛 가든
"홋카이도 보다 한누위 ~"



낮부터

형·형·색·색 꽃 만 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두발로 걷는 것도, 꽃길을 달리는 전동열차를 타는 기분도 색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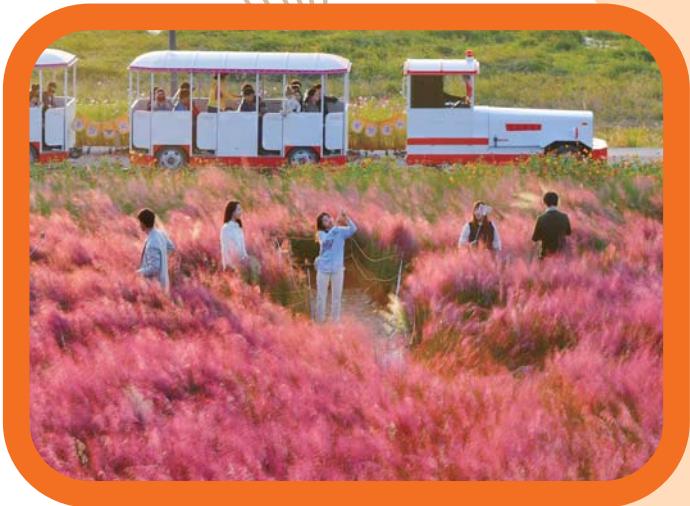
히아신스 마카우, 태양 앵무 등 2,600여 마리의 앵무새와 사막여우, 육지거북 등 동물 친구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앵무새체험관은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귀농인의 성공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가든팜페어는 도농 복합도시 장성을 어필하기에 충분했다. 전국단위 축제의 위상에 어울리는** 전국 휘호대회와 전국 문불여 백일장,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의 경연과 공연들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으며 즐거움을 더했다.



낭만야경 축제의 밤은 깊어만 가고





모두가 빠졌다. 축제의 즐거움으로



꽃의 빛깔이 선명하고 풍성한 낮도 아름답지만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조명들 사이에 빛나는 노란꽃잔치의 밤은 또 다른 매력이다.

‘깊은 강속에 사는 황룡이 밤마다 사람으로 변해 사람들을 돋는다’는 황룡강의 전설이 주제가 된 황룡정원과 아쿠아 가든에 밝혀진 조명은 금방이라도 황룡이 나타날 것만 같다. 한편, 옐로우 낭만버스킹과 정원음악회는 가을 밤의 정취를 느끼기 더할 나위 없었고 흥겨운 밸리댄스는 보는 내내 흥을 돋우었다.

그래서일까? 밤늦은 시간 까지도 **축제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즐거움도 가·지·가·지

밤까지

꽃만 보고 갈랑가 밥·도·묵·고·가·소



입장료도 없는데 장성의 맛이라도 보고 가세~

아름다운 정원만큼이나 사람들이 블비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먹거리부스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뭘 먹어도 맛있는 먹거리로 연일 긴 줄이 늘어섰다. 노란꽃잔치 개막 전 메뉴별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축제장에 입점할 식당이 선정되었고 합리적인 가격과 수준 높은 서비스까지. 맛, 가격, 서비스 3박자가 맞은 음식부스에선 식재료가 일찌감치 동이 날 정도였다. 군은 관광객들에게 황룡강 꽃도 보고 장성의 식당을 이용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겨운 사투리 프랑카드를 걸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여기가 어딘가 엄·청·좋·아·졌·소

꽃도 길도 다 이쁘요~ 장성 사람들은 좋것네~

이번 축제를 앞두고 획기적인 변신에 성공한 공설운동장 주변. 군은 해마다 밀려드는 관람객을 맞이하기엔 너무 협소하고 불편했던 **진입로를 4차선으로 넓히고 연장을 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108면의 주차 공간도 추가했다. 황금편백과 황금사철, 흥가시 등으로 꾸며진 **가로화단은 물론 인도까지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소나무를 식재하여 작은 공원도 만들었다**. 한편, 드넓게 펼쳐진 꽃밭마다 꽃길을 만들어 다양한 관람동선을 확보하고, 곳곳에 설치한 그늘막은 잠깐의 휴식과 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대폭 개선된 경관은 축제의 격뿐 아니라 장성의 격까지 높였다.



탁트인 공설운동장 주변도로와 소나무 공원

기적이 일다! 다시 울린

장성역 KTX 기적 소리

지난 9월 16일 새벽을 가르며 들어서는 KTX의 기적 소리는 마치 5만 장성군민이 함께 KTX 재정차를 결의했던 그날의 함성처럼 장성을 시가지 전역에 울려 퍼졌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임에도 장성역은 4년여 만에 재개된 KTX의 첫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군민들과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모습들로 여느 때보다 분주하고 설레인 가득했다.

KTX 장성역 재정차 기념식 박을 터뜨리는 내빈들





돌아온 KTX, 장성의 활기도 함께 찾다

목포발 KTX 용산행 첫 열차가 장성역의 플랫폼에 들어선 오전 6시 29분, 지난 4년간의 감회와 벅찬 마음으로 유두석 장성군수는 열차에 오르고 내리는 손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함께한 역무원과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50여 명은 ‘옐로우시티 장성’과 어울리는 노란 장미와 황금 떡, 황금 음료수를 준비해 승객에게 전달하며 기쁨을 나눴다. 예상치 못한 환영행사에 승객들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장성에서 시작된 하루가 행복할 것 같단다.

이후 11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기념행사에는 1,000여 명의 군민들이 역 앞 광장에 운집하였고 농악과 난타공연으로 축하 분위기를 한층 높이며 한판 잔치가 벌어졌다.

KTX 장성역 재정차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군은 포기하지 않았고 5만 군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KTX 재정차를 이루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개호 국회의원, 김만기 상무대 육군보병학교장을 비롯해 광주 북구청장, 광주 광산구청장, 담양 군수, 영광 군수 등 많은 축하객들이 이날의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성의 대박을 기원하는 ‘KTX 재정차 환영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9월 6일 재정차한 KTX 첫 승객을 맞이하는 군수





철길 따라 펼쳐진 장성군의 노력들



2004

- KTX 첫운행(일 2회 정차)
- 꾸준한 정차 증화(일 22회 정차)

2015

- 4월 정차 중단



2019

- 7월 24일 코레일 사장 면담 재정차 확정
- 9월 16일 장성역 KTX 재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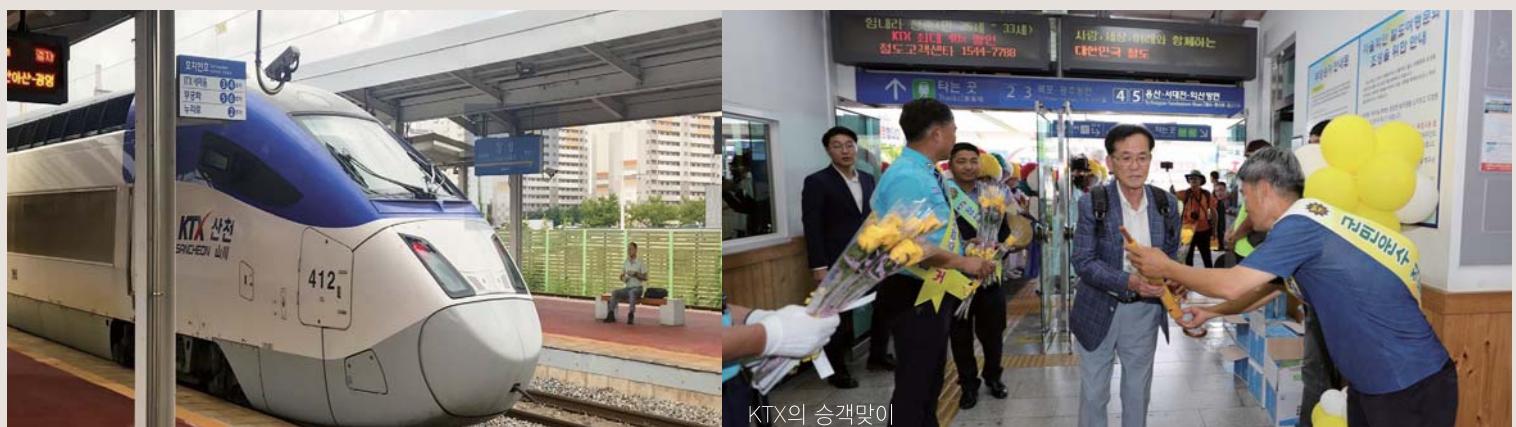


코레일 사장과 면담하는 군수

5만 군민의 뚝심, KTX 재정차 기적 이뤄내

2004년 1일 4회 운행으로 시작된 장성역 KTX는 꾸준한 이용객의 증가로 22회까지 증차됐었다. 201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1일 평균 553명이 장성역에서 KTX를 이용하며 장성군과 인근 광주 북구, 광산구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2015년 4월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장성역 정차가 중단되면서, KTX를 탔던 이용객들은 광주송정역에서 타거나 정읍역과 익산역에서 환승을 해야만 했다. 장성군민뿐만 아니라 상무대 교육생과 면회객, 인근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늘 활기찼던 장성역 주변 상가들의 경기 또한 침체됐다.

이에 군은 KTX 정차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정차가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와 KTX 노선 대안 등을 제시하며 수차례 건의했다. 군민들도 KTX 장성역 정차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2,315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등 절실히 호소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된 건의와 설득, 획기적인 대안제시로 마침내 9월 16일 장성역에 KTX의 기적 소리는 다시 울렸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거버넌스’가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KTX로 한층 가까워진 장성, 장성 발전의 기폭제

KTX 장성역 재정차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군민과 향우뿐만 아니라, 상무대 교육생과 면회객, 광주 북부와 첨단·수완지구, 담양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객 범위가 확대되면 정차 횟수 확대 또한 기대된다.

올해 100만여 명이 넘게 다녀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기간에 KTX 이용객의 수가 늘어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 축제 기간동안 열차 증편, 특별기차 운행 등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발판 삼아 우리 군도 코레일과 협약을 통해 KTX 재정차를 통한 장성 관광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KTX의 재정차로 장성은 서울, 경기 지역과 한층 가까워졌고 이를 계기로 장성에 더 많은 이들이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상가의 소득도 늘어나 장성군 지역 경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장성역 전경

편리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장성역

2015년 KTX의 운행이 중단되었음에도 장성군과 군민들은 이에 주저앉지 않았다. 마치 심폐소생술이라도 하듯 오히려 장성역 주변을 더 열심히 가꿨다.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가꾼 정원과 빈센트 테마 벽화거리는 새로운 장성의 포토스팟으로 떠올랐고, 매년 장성역 주변에서 개최하는 '빈센트의 봄'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광주송정역이나 정읍역과 비교해 편리한 인프라 또한 훨씬 잘 갖추었다. 광주에서 장성으로 들어서는 옐로우게이트부 터 청운고가에 이르는 시원한 도로는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258면의 공영주차장과 가까운 승하차장도 있다.

군민과 함께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장성군은 역 주변 정비와 버스 시간 조정 등 장성역 KTX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빈센트 테마 벽화거리



KTX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KTX 이게 좋아요!

장성읍 성산리
최정중 어르신

장성역에 KTX가 다니니 좋은 거야 말 다 못하제. 서울에 있는 아들네에 한번 가자믄 버스를 타거나 광주 송정리까지 나가야 해서 나서기도 전에 맴이 번잡했는디, 장성역에서 바로 타고 가니 아들네도, 나도 서로 오가기가 영관 좋소.

장성군새마을회
오봉원 회장

재정차를 위해 주민들과 서명운동을 벌이던 때가 떠올라 가슴이 벅찼습니다. KTX가 다시 운행되면 꼭 첫차를 타봐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현실이 되어 어찌나 기쁘던지요. 환송해 주는 군수님과 주민들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서울에 당일로 다녀오는 것이 제 나이에 쉬운 일이 아닌데 중간에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없고 KTX가 빠르니 다녀올만 하더군요. 이제 KTX가 더 자주 다니도록 힘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장성군청
김예진 주무관

장성군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종인 관장

지난 10월 16일 장애우 10명과 인솔자, 봉사자들이 함께 서울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장성역에 KTX가 다시 운행되지 않았다면 엄두도 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용해 보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장성역만큼 이용이 편한 곳이 있을까 싶더군요.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하차장까지 바로 갈 수 있으니 어르신들도 유모차를 동반하는 가족들도 이용하기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나들이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서울에 다녀왔는데, 장성에서 출발해 용산까지 한 번에 가니 번거롭지 않았어요. 서울 일정을 마무리하고 장성에 올 때도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이네요. 3시간도 채 안 걸리더라구요. 탑승 시간이 짧아서인지 피로감도 훨 덜하고 서울 출장이 부담스럽지 않네요.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면 주정차가 힘들어서 불편했는데, 역 바로 앞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바쁜 출장길에 시간도 돈도 절약되고 정말 좋았답니다.



한국의 서원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앞선 7월 6일 유네스코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심의를 맡은 이코모스는 한국의 서원에 대해 “조선시대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던 성리학의 증거이자, 이를 지역 전파에 이바지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필수조건인 ‘탁월한 보편적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이어 9월 개최된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받은 자랑스러운 필암서원은 장성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10월 23일 필암서원 앞 널찍한 공원에서는 자랑스러운 필암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제공 : SNS서포터즈 조경원



인류의 유산이 되다 자랑스러운 필암서원

“문물여장성의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계적인 문화재인 필암서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필암서원의 체계적인 보수·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문화재의 가치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를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유산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수 유 두 석



필암서원 영원한 역사적 가치를 심다

군민들의 신명나는 농악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세계유산 등재를 새긴 기념비 제막식과 기념 식수, 등재 선포식과 김덕수 사물놀이의 축하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군은 필암서원의 역사적 가치가 영원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이 간다고 알려져 있는 ‘금빛노을주목’을 기념 식수로 식재하였다.

이번 필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그동안 서원의 전통과 문화를 귀하게 지켜온 군민들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졌다. ‘학문은 장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명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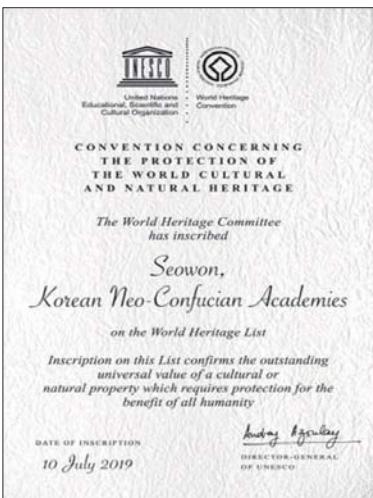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고하다

군은 앞서 8월 19일 하서 김인후 선생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고하는 의미를 지닌 고유제를 필암서원 우동사에서 봉행했다. 고유제가 열린 우동사의 우(祐)는 하늘의 도움이라는 뜻으로 ‘우동’이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하늘의 도움으로 동방에서 태어난 이, 즉 하서 김인후 선생을 뜻한다. 고유제는 국가나 왕실, 사회, 가정에서 일상으로 행하던 의례다.

지금도 서원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난다

필암서원에서는 지금도 서원답게 매년 두차례 학술발표회와 경서 강독회가 열린다. 서원이 문화재로만 머물러서는 안되기에 군은 20년 동안 매주 선비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서 선생 유적지 탐방 글짓기대회와 예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매년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공직자 1만여 명은 필암서원의 선비정신을 계승한 ‘청렴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군은 연일 찾아드는 방문객들에게 필암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하고 필암서원의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유산에 걸맞게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필암서원 둘러보기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설 교육기관인 필암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호남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서원이다.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 선생의 고향인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에는 붓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어 이를 필암이라고 불리는데 이 곳 인근에 위치해 필암서원이라 하였다.

학연루는 필암서원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며 서원의 주 출입문과 2층에 휴식공간이 있다. 우측이 들어가는 입구이고 좌측이 출구이다. 서원에 겸손한 마음으로 출입을 하라는 의미에서인지 고개를 숙여야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문이 낮다. ‘廓然樓(학연루)’라는 현판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것이다.



필암서원 배치

- ① 확연루
- ② 청절당
- ③ 진덕재
- ④ 숭의재
- ⑤ 경장각
- ⑥ 우동사
- ⑦ 한장사
- ⑧ 장판각

확연루를 지나 몇 걸음 나아가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지금의 교실격인 **청절당**이 위치해 있다. 청절당의 처마 밑에는 윤봉구가 쓴 '筆巖書院(필암서원)' 현판이 걸려있다.

청절당의 좌·우측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진덕재, 숭의재**라 불리는 2개동의 기숙사가 있다.

청절당을 마주한 죄측에는 '**경장각**'이라는 쓰인 편액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조대왕의 어필로 망이 쳐있다. 이곳에는 인종이 하사하신 묵죽도(墨竹圖)의 판각을 보관하고 있는데 하서 김인후 선생은 인종의 세자시절 스승이었다.

청절당을 마주한 문을 지나면 북쪽에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위패가, 동쪽에는 고암 양자징(하서선생의 제자이자 사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우동사**가 있다.

필암서원은 유생들이 늘 사당을 바라보며 공손히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청절당, 진덕재, 숭의재가 우동사를 향하고 있는 독특한 배치이다.

서원 맨 안쪽 우측에는 노비들이 기거하였다는 **한장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서원이니 식사며 노비들의 수발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한장사 좌측의 **장판각**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할 책들을 만들어냈으니 지금의 발간실 정도 되겠다.

조선시대 임금이 편액, 서적, 토지, 노비 등을 하사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하는데 필암서원은 호남 최대의 사액서원이다.

깊어가는 가을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500여 년간 이어온 필암서원으로 걸음해 옛 선현들의 정신과 풍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한국의 서원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마을이야기 박람회 ‘대상’ 수상

황룡을 품은 ‘장성 황룡마을’

엘로우시티를 탄생시킨 전설을 지닌 황룡마을이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스토리를 보유한 전남의 최고 마을임을 입증했다.

“황룡”이 3번이나 들어간 마을

황룡이라는 단어는 지금이야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과거에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장성의 황룡면 황룡리 황룡마을은 ‘황룡’이란 단어가 3번이나 겹쳐진 만큼 황룡과 관련된 설화도 많고 빼어난 인물도 많다.

전남 8,500여 개 마을을 대표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인구감소로 사라져가고 있는 마을들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조성하고자 개최된 행사다. 전남 지역 8,500여 개의 자연마을 중에서 **황룡마을이 전남 최고의 스토리를 보유한 마을**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대상 수상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2019. 8. 30(수) ~ 9. 1(목) 3일간 무아종합스포츠파크

세상을
품다 + 마을을
잇다





황룡마을 전경



요월정

옐로우시티를 탄생시킨 전설의 마을

지자체 최초 색채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는 ‘옐로우시티’는 황룡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의 이야기가 장성군을 대표하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황룡마을 주민들에게 큰 자부심이다. 더불어 이번 대상 수상으로 주민들의 자부심과 애향심이 더욱 커졌다. 주민들이 지키고 이어온 황룡마을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란다.



장성군의 이유 있는 노력, ‘백암산’ 이름 찾기



백양사·쌍계루

장성군은 ‘내장산국립공원’이라는 이름에 ‘백암산’을 함께 표기하는 국립공원 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내장산 ·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명칭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천연기념물을 품은 명산

백암산은 장성을 대표하는 산으로 1,400여 년 전 백제 무왕 33년에 창건한 호남불교의 요람인 백양사가 자리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숲, 고불매 등 유구한 역사와 문화, 예술 자원을 품에 안고 있는 명산이다. 백학봉, 사자봉 등 기암괴석 봉우리가 응장한 매력을 뽐내며, 산세에 비해 순탄한 등산로와 4계절 수려한 풍광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내장산국립공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장성에 와서야 백암산과 백양사가 장성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광객이 적지 않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42%는 장성군의 백암산

내장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81km²로 장성군, 정읍시, 순창군에 걸쳐있다. 장성의 백암산은 이 중 42%를 차지하는 34km²에 달하는 면적으로 정읍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1년 ‘내장산국립공원’으로 지정, 명명되면서 내장산의 그늘에 가려졌다. 이러한 백암산을 50년 가까이 지켜봐야 했던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군분투 장성의 세 번째 이름 찾기

‘내장산국립공원’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9년 유림을 주축으로 한 명칭 변경 운동에 이어 민선 4기인 2007년에도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반대에 부딪혀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로 변경하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군은 알려져 왔던 내장산을 유지하되 ‘백암산’을 함께 표기하는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이라는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후지산이 속한 국립공원도 후지·하코네·이즈 등 산이름 3개를 함께

쓰고 있다. 이 외에도 다섯 곳의 국립공원이 2개 이상의 산 이름을 함께 쓰고 있다.

‘백암산’ 이름이 갖는 의미

‘백암산’이라는 이름은 사계절 아름다운 명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를 의미한다. KTX를 이용해 장성역에서 백암산의 백양사를 갈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름’만으로도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 백암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자긍심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관광활성화에도 큰 봄을 할 것이다. 내장산과 백암산, 두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함께 번영하는 길이 머지않아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2007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 명칭보완 서명운동



다함께잘사는 옐로우시티 장성

「푸드플랜」 비전 선포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

군은 푸드플랜 기반구축 공모사업의 최우수 지자체, 로컬푸드 안정공급 기반구축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며 최대 150억 원 규모의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건강한 군민, 지속 가능한 농업, 다함께 잘사는 장성군'을 목표로 장성이 만들어갈 장성 푸드플랜의 비전을 들여다본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잘사는 현명한 답

정성껏 키우고 만들었지만 불안정한 수요와 공급에 한숨을 내쉬는 농업인

가족에게 믿고 먹일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 해매는 유목민 소비자

앞으로 장성에서는 이런 모습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모습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군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서로 다른 고민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답을 제시했다.

바로 장성형 푸드플랜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

과 소비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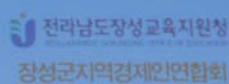
먹거리 체계 구축, 착한 순환의 고리를 잇다

지난 9월 19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농업인은 안정된 소득으로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잘 사는 ‘장성 푸드플랜’의 비전을 선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상무대, 교육지원청,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지역경제인협의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참석자들은 장성 푸드플랜 비전 낭독과 구호제창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장성교육지원청,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지역경제인협의회는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다짐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나 기업체 급식 등에서 장성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상시 교류한다는 취지다.

건강한 먹거리, 옐로우시티 로컬푸드展

푸드플랜 선포가 있던 날 행사장 로비에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전시한 옐로우시티 로컬푸드전이 꾸며져 참석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농업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고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돋고 있는 창업보육과 장성에 돌아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돋는 청년연어 등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농업 교육과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졌다.

장성 농산물 소비촉진 협약





장성군 먹거리위원회 출범식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푸드플랜 ‘본격화’

군은 청년과 여성 귀농인 등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 ‘푸드플랜 활동가’를 양성한다. ‘농식품업체 네트워크’는 마을공동체나 가공업체의 장성 농산물 사용확대와 지역내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 한편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와 지역단위 농협은 ‘농협실무단’을 구성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처를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31명의 ‘장성군 먹거리위원회’를 발족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 지역 먹거리 현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이로써 농업인부터 가공업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장성의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

푸드플랜 선포식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군민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웃는 직거래장터 정례화

장성 농업인이 가꾼 싱싱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상무대 주민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를 갖고자 올해 초 장성군과 상무대,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과 군인가족이 함께 한다는 의미의 팜밀리(farmily) 마켓은 지난 6월 처음 개최했을 때 3천여 명의 농가와 소비자가 참여했다. 상무대 주민과 농가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장성군은 정기 운영을 고민해 왔고 한국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aT)의 ‘2019년 2차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9월부터 장성호의 로컬 푸드 직거래장터와 상무아파트 내 ‘팜밀리(farmily) 마켓’ 두 곳에서 직거래장터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선선한 가을 주말,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도 장바구니에 담고 빼어난 장성호 수변길과 출렁다리의 풍광도 눈에 담아 보길 권해 본다.



장성호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상무아파트 팜밀리 마켓

장성호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164-1(장성호 주차장)
- 운영시간 : 매주 주말, 공휴일 10:00~17:00

팜밀리마켓

- 주 소 :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548(상무아파트 내)
- 운영시간 : 매월 넷째주 목요일, 금요일 10:00~18:00

장성의 맛을 찾아라!

장성의 맛을 찾기 위한 뜨거운 맛대결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옐로우 출렁다리, 축령산 등 장성의 수려한 관광지에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감에도 장성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었다. 이는 지역경제와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군은 맛 찾기에 두팔을 걷었다.



전국 황금요리 경연대회

스타 셰프(요리사)의 장성 나들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둘째 날 주무대에서는 ‘빅마마’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요리연구가 이해정과 중식요리의 대가 여경래 셰프가 함께 한 쿠킹 쇼가 열렸다. 쿠킹쇼의 메인 메뉴인 ‘황금요리’는 옐로우시티 장성을 모티브로 삼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성에서 키운 농산물로 군수와 셰프들이 황금주먹밥을 만들어 객석의 관람객들도 함께 시식해 호평을 받았고 셰프들과 관내 음식업소들은 장성의 맛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선보인 이해정 씨의 ‘사테 과일겨자채’

와 여경래 씨의 ‘레몬 닭고기’ 레시피를 전달받아 장성군에서 대표음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새로운 장성의 맛을 찾다, ‘전국 황금요리 경연대회’

대회 전부터 전국 300여 개의 팀들이 신청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참가해 ‘장성의 맛’을 주제로 본선 경합을 벌였다. ‘닭을 활용해 황금요리’를 선보인 황금한상(이문수, 유종길-대전 유성구) 팀이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고, ‘육회의 재해석과 곁들인 부각’을 선보인 호남대(박성곤, 한국인-장성군) 팀이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 올금을 이용한 황금두부 탕수육의 황금가족(경기도 파주시), 한우 육회초밥과 금빛 된장국을 선보인 한우맛있게하누(서울 동작구) 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의 수상작과 출품작들 또한 장성군은 외식업 보급메뉴로 연구해 메뉴개발 교육 후 레시피를 보급할 예정이다.



맛콘테스트 대상 수상



황금주먹밥을 함께 만드는 모습



대상 : 닭을 활용한 황금요리
황금한상(대전 유성구)

황금요리 경연대회 수상작



최우수상 : 육회의 재해석과 곁들인 부각
호남대(장성군)



우수상 : 황금두부 탕수육
황금가족(경기도 파주시)



우수상 : 한우 육회초밥과 금빛 된장국
한우맛있게하누(서울 동작구)

숨겨진 맛을 찾다,
‘옐로우시티 맛집콘테스트’

맛집 콘테스트 평가



8월 8일 군민회관은 맛있는 냄새와 열띤 경합으로 후끈했다. 장성의 내로라하는 80여 개의 요식업체들이 참여해 각자의 메뉴들을 선보였다. 준비한 메뉴들을 예쁘게 담아내고 설명하는 모습들이 사뭇 진지했다.

콘테스트에서 최종 선정된 업소는 맛지도에 수록되어 장성의 맛을 안내할 대표 맛집으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으로 개최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전문가들이 엄선한 장성 맛집

옐로우시티 맛집 콘테스트는 대학교수와 외식사업가, 전문컨설턴트, 블로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맛평가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심사했다. 1차 평가는 업소명을 가리고 맛과 플레이팅, 가격합리성, 대중성, 장성이미지 부합도 기준으로 평가했다. 통과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식당을 직접 방문해 위생 상태, 서비스 등 3개 기준을 중심으로 2차 평가가 이루어졌다.

맛리장성 장성맛지도

장성의 맛을 지도에 담아내면 어떤 모습일까? 장성의 관광지와 맛집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맛집의 정보를 담아 제작된 ‘맛리장성 장성맛지도’는 11월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장성의 맛과 아름다운 명소를 안내하는 맛지도를 들고 장성에서 식도락을 천천히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



장성 경제에 순항의 닻을 올리다 장성사랑상품권

장성의 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돈이 회전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성군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이 지난 9월 장성 경제에 순항의 닻을 올렸다.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군수

발행과 동시에 구입문의와 가맹점 신청 쇄도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으로 만들어진 장성사랑상품권은 지난 9월 5일 첫 발행을 시작으로 장성의 농축협에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발행기념 특별 행사로 10월 20일까지 현금 구입 시 10% 할인을 했고 현재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법인 등 단체는 할인은 받을 수 없지만 구매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발행일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및 음식점, 주

유소 마트 등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명절선물을 상품권으로 대신하려는 구입 문의와 명절과 축제 특수를 기대한 전통시장,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서 자발적인 가맹점 신청이 쇄도해 10월 30일 기준 19억 원이 판매되고 1,100개의 업소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2억6천1백만원 판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에서는 지난해까지 발행했던 쿠폰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대체했다. 축제장에 현금인출기와 상품권 판매장을 개설하고 입점업체들을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해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일부 체험은 추가할인까지 있어 관광객들은 상품권 구입에 주저함이 없었다. 축제쿠폰 발행비용을 줄인 것은 물론 축제장을 포함한 장성 어디에서나 장성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었기에 장성 전역에 활기가 넘쳤다.

사면 살수록, 쓰면 쓸수록 이익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니 현금지출을 줄일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가의 효과가 있다. 사면 살수록 쓰면 쓸수록 가계와 가맹점 모두가 이익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군의 경우, 상품권 판매액 19억에 대한 소상공인의 1인당

추가 소득 증가율은 2.13%(0.4억), 황룡강 노란꽃잔치 판매액에 따른 지역내 지출은 3.75배(10억)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예산(2.4억 원) 대비 부가가치가 15.9배(38억 원)으로 예측된다.

장성 경제에 불고 있는 순풍

판매된 상품권들은 고스란히 장성 전역에서 쓰여지니 가맹점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상품권 발행을 반겼다.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상품권 발행 이후 매출변화를 실감한다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요새 많아요. 나는 농협에서 그대로 돌려 받으니 손해가 없고 사시는 분들은 싸게 사니 좋지요. 싸게 사고 많이 팔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라고 전했다.

장성사랑상품권에서 시작된 지역의 경기가 장성전역으로 퍼지길 기대해 본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상품권판매장과 앙무새체험관



옐로우시티 장성을 디자인하다

안전도 UP !

삼서면 대곡사거리 회전교차로

삼서면의 관문인 대곡사거리가 회전교차로로 변신을 했다. 지역주민과 상무대 장병 및 면회객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첫 삽을 뜯 지 2년 만이다.

광주광역시, 영광군, 함평군을 연결하는 이곳은 상무대 면회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로 장성군에서도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한 곳이다. 평면교차로였던 이전에는 **상무대 군인들이 출퇴근 때마다 교통 체증과 사고가 빈번하게 있었으나 이제는 걱정 없게 되었다.**

군은 19억 원의 예산으로 삼서면의 대표작물 잔디와 메리골드를 심어 예쁘게 단장을 했을 뿐 아니라 소재지 인근에 도로와 주차장이 부족해 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878m의 도로를 정비하고 52면의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였다.

상무대 입구 이전 모습





세련미 UP !

장성군 농촌버스

우리 군의 농촌버스가 10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 입는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반영해 산뜻하게 변신한 농촌버스 2대가 10월 말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디자인 전문가와 업체, 교통 관계자 등이 수차례 검토와 협의 끝에 시안을 마련했고 다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군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했다.

군은 시범 운행 기간 중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33대의 농촌버스에 순차적으로 디자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화사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으로 변한 장성군의 농촌버스는 주민의 편리는 물론 달리는 홍보매체 역할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 UP !

장성군보건소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희망을 주는 노란색 외벽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화재에 대비한 불연외장재를 시공하고 건강의 메시지를 담은 노란색을 더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가갈 것이다.





“학교 다니기 좋은 곳, 장성만 한 곳이 없다”

뉴 문불여장성 (NEW 文不如長城)

유난히도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저 하늘만큼이나 높고 푸른 꿈을 가슴에 품고 있겠지요. ‘New 문불여장성’의 명맥을 이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이 배우고 자라고 있는 장성군의 학교를 소개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코너입니다.

사랑 속에서 꿈을 키우는 행복한

약수초등학교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 백양사가 위치한 북하면 약수리에 위치한 약수초등학교는 백암산의 정기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과거 대악초등학교, 북상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를 통폐합해 1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도 함께 사랑하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약수초등학교 꿈나무들을 만나보자.

매일매일 오고 싶은 학교, 학교가 즐거워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놀이시간에는 선생님들과 전교생이 함께 전래놀이를 한다. 딱지치기, 알까기, 실뜨기, 사방치기 등 놀이를 통해 서로의 눈을 맞추며 배려하고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운다. 놀이가 있는 배움이니 즐겁지 않을 수 있을까?



“ ”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활달해요.
몸으로 움직이고 함께 하는 놀이교육을 많이 해서일까요?
발표나 공개수업에도 모두들 씩씩하게 참여하지요.
학교가 언제나 아이들에게 즐거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 교감 신숙녀-



도서관은 또 하나의 놀이터

도서관을 이렇게 즐기는 아이들이 또 있을까? 아이들이 도서관을 재미있는 공간으로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푹신한 쿠션과 커다란 스케치북, 낮은 탁자와 낮은 의자를 놓아 꾸몄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책은 또 다른 놀이감이다. 시시때때로 도서관을 찾으며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좋은 생각, 좋은 사람 행복한 학교

장성황룡중학교

황룡의 기운을 받은 듯 학교 이름부터 범상치 않다. 노란꽃 잔치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황룡강이 학교 앞에 흘러 각별한 인연이 있을 듯한 장성황룡중학교를 찾았다.

전교생이 예·체능 인증획득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1인 1악기와 1인 2운동을 학생 개개인이 정하고, 농구, 축구, 스키 등의 운동은 물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과정이 있다. 튼튼한 체력과 함께 건강한 감성을 갖도록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증서를 수여한다. 그들이 갈고닦은 실력은 『황룡무대』를 통해서 한껏 뽐낸다.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조화와 협력의 정신을 예·체능 활동의 팀워크와 페어플레이를 통해 기르고 있다.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핵심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3D 프린터, VR, 드론 코딩 등을 직접 다룬다. 주요 직업들에 대한 진로 교육과 찾아가는 직업체험 교실로 아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실내스키체험



자연의 소중함, 체험으로 익혀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친환경 텃밭에 상추와 채소들을 직접 가꾸며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생명의 신비함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다. ‘내고장 물지킴이 에코 그린리더’라는 수질동아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자매결연을 하여 장성호의 수질검사에 직접 참여한다. 생태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배우게 되니 이들 중 한국을 대표하는 환경 전문가가 나올 법하다.

황룡 독서 삼품제

정규 수업 전 매일 아침 30분은 전교생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독서 시간을 갖는다.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 일정한 독서량에 따라 삼품에서 이품, 일품으로 올라간다. 이와 연계하여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위해 독서캠프, 독서 골든벨 대회, 토론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내고장 물지킴이 동아리 에코 그린리더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명품학교
장성고등학교

자연의 넉넉한 품안에 오롯이 자리잡은 전원 속 학교인 장성고등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 뿐 아니라 나눔과 배려가 있는 인성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전남 유일한 만점자를 배출하였고 서울대와 연대, 고대는 물론 경찰대와 사관학교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합격했다. 인재들의 요람인 장성고등학교를 들여다 보자.

개개인에 맞춘 딱 맞는 교육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장성고등학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학생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한다. 활발한 동아리 활동은 학생 자신이 행복 속에 꿈을 그려나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갈고닦은 실력으로 학교행사에서 맘껏 끼를 발산하기도 한다

ALL Clean Up 학교 캠페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직접 만들자며 학생들이 두 팔을 벌고 나섰다. 친구들끼리 고민을 상담하는 또래상담, 고마운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친구데이, 학교폭력과 흡연이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All Clean Up 캠페인 등 아이들 스스로 자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기발랄 장성고 유튜브 채널

학교 홍보영상을 비롯해 영채(학생이름)의 즐거운 장고생활, 졸업생이 말하는 학교 등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유튜브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통통 튀는 그들의 재기발랄한 모습에 보는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나눔을 실천하는 1004 학교

아껴서 남주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1004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먹고 싶은 간식을 참고 가까운 거리는 걸으며 절약해 모은 성금으로 후원물품을 준비한다. 장성을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홀로 계신 어르신과 장애가 있는 이웃을 방문하여 청소도 하고 직접 부침개도 부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배운다.



1. C-real 동아리 발표대회
2. 골드버그대회
3. 유튜브 채널
4. 어르신들을 위해 멋진 노래 공연을 펼치며 온기를 나누는 천사학교

STORY

포용의 리더십으로, 그 빛을 더하다



김효석 _ 대한석유협회 회장

- 황룡면 황룡리 출생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
- 행정고시 11회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및 학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제16~18대 국회의원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대표, 민주정책연구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현. 대한석유협회 회장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석유강국이 되었다. 석유산업의 한 중심에서 포용과 통합의 카리스마로 리더십을 발하고 있는 김효석 대한석유협회 회장을 만났다.

정부와 정유업계의 가교

정유업계를 대변하면서도 정부와 업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에 그는 2017년 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들여다보니 석유산업은 단순히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하여 국내 유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경제능력을 100배 가까이 늘리고, 지난해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 5위의 경제시설 보유국으로 국가의 경쟁 또한 높아졌다. 석유제품의 56%를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새삼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혜안을 겸비한 리더

국민의 정부 시절 김회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며 우리나라에 벤처 열풍을 일으키고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 잘 쓰는 나라, IT 강국을 만드는 밑그림을 그렸다. 장성군에 도심의 PC방처럼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사랑방”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도 김 회장이 마련했었다.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을 연 정보사랑방은 농촌에 초고속망이 들어오고 가구마다 PC가 보급되는 정보화마을이 조성되는 시초가 되었다.



석유협회 회원사를 방문한 김효석 회장



한양대학교에서 매경CEO강연 모습

장성과 똑 닮은 그는 아직 청년

걷는 길마다 크고 너른 걸음을 하고 있는 그의 화려한 이력 뒤에는 그만큼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터이다.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한다. 자상한 성품의 아버지는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며 어린 김 회장의 기를 살려 주셨다. 게다가 순둥이 막내아들의 공부하는 품새가 달라보였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광주로 전학을 보내셨다. 시골 공무원으로 9남매를 키우시는 부모님 생각에 생활비를 아껴 쓴 탓에 고3때는 영양실조와 폐결핵을 앓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회장에 선출되는가 하면, 병마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졸업 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0년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조지아대학교 유학 3년 반 만에 경영학 석·박사 학위까지 마치고 돌아와 중앙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섰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IT분야를 개척하고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길을 구축하며 강단에 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명교수로 인정받아 대기업 특강과 컨설팅 자문을 맡기도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 세 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쉼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창신(創新)하며 세상을 걷는 청년 김효석은 영락없이 장성의 지금과 닮아있다.

장성의 향기를 그리는 자연인

2007년 국회의원 활동시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했던 김 회장은 백암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백암산의 이름을 온전하게 찾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다. 하여 장성군이 다시 시작한 국립공원의 명칭 변경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이 된데 대해서도 의원시절 필암서원을 호남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매년 특별교부세를 가져왔던 그는 남다른 감회를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노란꽃잔치가 열리고 있는 황룡강의 어린 시절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는 “옛모습을 잃어가는 황룡강의 모습에 아쉬움을 느꼈으나 노란꽃잔치로 다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 놀랍고 기쁘다. 앞으로도 고향 장성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격변기를 맞고 있는 이 때 장성인 김효석 회장이 이끄는 대한석유협회가 이 파고를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기를 5만 장성군민이 응원한다.

설 화

우리 마을 옛날 옛적에

사라져가는 우리군 구전설화의 명맥을 잊고 보존하기 위해
2016년 실시된 '장성군 설화 발굴사업'으로 수집된 설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을을 오롯이 담은 항공사진도 함께 실어봅니다.

목호재(牧虎峙) 효자와 호랑이

• 제보자 : 공영갑

남면 마산마을

장성읍에서 광주로 넘나드는 '못재'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의 전설을 아는 이들은 '모고재'라고도 부르는데 한 자에서 보듯 '목호치(牧虎峙)'가 '목호재'가 되고 '모고재'와 '못재'로 불리우게 된 것이라하네요.

신작로가 생기기 전에는 전주에서 나주를 가려면 모두 이 고개를 넘어 가야 했어요. 고개에 오르면 남면 일대의 평야가 눈 아래 굽어보이고, 멀리 비아, 첨단, 무등산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도둑이 들끓었던 고갯길이었다고 합니다.

'모고재'라 불리던 그 옛날, 고갯길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한 초부가 있었답니다. 어머니를 섬기는 극진함에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질 않았다네요. 주로 '불태산'이나 '월선봉'에서 나무를 해 끼니를 이어 갔는데, 하루는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길에 아리따운 한 여인을 만났답니다. 외진 산길에 만난 여인이라 여우가 변신을 했나 싶어 바삐 걸음을 옮기는데, 이 여인이 초부를 불러 세우더래요. "당신의 효성이 지극함을 아는지라 전할 말이 있어 기다렸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일 당신의 어머니가 호랑에게 잡아먹힐 운명인데, 이를 막을 방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라고 말을 꺼내며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겠냐고 다짐을 받았답니다.

이에 효성이 지극하고 순박한 초부는 "어머니를 살려주실 방책을 알고 계시다는 데, 듣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답했어요.



여인이 내일은 집을 비우지 말고 어머니를 방안에만 모시되, 마당 한가운데 쌀죽을 쑤어 한 동이 퍼놓고 그 곁에 어머니 옷을 입힌 허수아비를 세워 두라고 했대요.

집에 돌아온 초부는 서둘러 여인이 시킨 대로 차려 놓았답니다. 이튿날 진짜로 호랑이가 나타나 큰소리로 겁을 주더니, 마당의 쌀죽을 먹고 허수아비를 물고 사라지더랍니다. 덕분에 두 모자는 화를 면하고 그 뒤로 오래오래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답니다.



마산마을 옛모습 1994/2019



호랑이의 도움으로 약초를 구한 김해 김씨

• 제보자 : 변갑철

동화면 구봉마을

우리 집 앞에 열녀비가 서있는디 내게로는 처할머니, 탐진 최씨의 부인의 비여요. 탐진 최씨, 그 남편 냥반이 아파계셨는 갑씨요. 앞에 백약이 있어도 무효여. 그래 갖고 김해 김씨가 어떻게나 약을 구하러 다닐 참인디, 거 우리 마을 뒤 산에 가셨는가베요. 약초를 구할라고 말이제. 그란디 호랑이가 척 앞에 나타났어. 놀랠 것 아니여요. 아무리 도망갈 길을 찾아봐도 진퇴양난이라 오도가도 못허고 있는데 호랑이가 땅을 두 앞발로 턱턱 두들기고 가더라요. 그래서 하도 이

상호다 느껴서 가서 본께 길 가운데 이상한 약초 뿌리가 있는거라.

아! 신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약을 쪘는갑다 허고 그 약초 뿌리를 정성들여서 캐가지고 와서 달여 드렸제. 궁께 남편이 그것을 자시고 회복이 되았다 그려요. 그 뒤로 아들 형제를 낳아 놓고 탐진 최씨가 돌아 가셨는디 아매 딸도 하나 있었다든가 그려요. 남편이 일찍 돌아 가서본게 홀로 계신 김해 김씨가 자슥들 키우니라고 고생을 지독히 하셨제.

사람들이 이런 부인은 열녀비를 세워 줘야제 안 해주면 쓰겄냐 그래 갖고 열녀 거시기를 내리주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가에 장가 가서 문서때기를 떠들려 본 게 고것이 있어. 그래서 장인어른한티 이렇게 훌륭한 할머니가 계신디 이리 두쁜 안 된다고 비석을 세우자고 했제. 내가 권유를 했드만 우리 장인어른이 흔쾌히 혀락을 하셨제. 그래 갖고 ‘박균수’라는 양반한티 가서 열녀비문을 받아다가 세웠어요. 못 먹고 살던 때라, 집안에 있는 뭐 여러 잡동사니를 전부 팔아갖고 비를 세우셨지요.



구봉마을 옛모습 1970/2019



벼락 할아버지와 도깨비

• 제보자 : 오미정

석전 마을에는 북소리가 둉둥 울리는 그런 빈 집터들이 몇이 있었는디 어른들 말로는 그게 잘되는 터는 주인을 잘 만나면 흥허고 잘못 만나면 사람이 아주 이상해지기도 한다네요. 대밭집이라고 마을 아래 짹으로 빈 집터가 있는데, 그 앞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북소리가 둉둥둥 났다고 해요.

웃대 어르신 중에 벼락할아버지라고 한번 소리를 질러 블믄 동네사람들이 아조 그냥 쩔쩔 매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 분 집을 짓느라 울력을 하고 있는데 집을 올리면 무너져블고 올리믄 또 무너져브렀다네요. 열불이 나서 누가 해꼬지를 하는가 싶어 가만히 숨어서 지켜봤더니 도깨비들이 장난을 쳤었네요. 그 때 벼락할아버지가 ‘이놈들’ 허고 고함을 치니 도깨비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 뒤론 도깨비들이 나타나지 않아 탈 없이 집도 잘 지셨다네요.

그 어르신 목청이 어찌나 큰지 윗마을서 함성을 냅다 지르면 아랫마을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는데 근래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안 계십니다.



석전마을 1999/2019





마음으로 떠나는 이생화 여행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한창이던 10월 10일 제1107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서는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꽃이라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키워 가는지 들여다보고 장성과 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유 미
국립수목원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 산림청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 임업연구사
- 국립수목원 식물보존과 임업연구사
-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장
- 저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무 백가지> 외 다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세상을 바꾼다.



뉴욕을 바꾼 시장이 있다. 2007년 마이클 블롬버그는 시민들에게 두 손만 가지고 오라고 하며 이웃과 함께 나무를 심는 두 손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으로 캠페인은 번져 나갔고 그 결과 도시에 변화가 일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알게 되고, 녹색 공간이 늘어가면서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범죄율이 낮아져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된 것이다.

먼 나라 먼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장성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황폐했던 축령산에 임종국 선생이 심은 편백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대한민국 최대 인공편백림이 탄생했고, 황룡강 강변에 꽃씨를 뿌리고 가꾼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매년 100만의 관광객들이 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이 되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큰 것들이 아닌, 아주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된 것이다.



2019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정원과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

장성이 꽃과 자연을 주제로 도시를 가꿔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있는 일이다. 한 예로 2016년 영국에서 조사한 관광명소의 순위를 들여다보면 큐 가든, 위즐리 가든, 이든 프로젝트 등 정원들의 순위가 높은데 반해 동물원, 성당들의 순위는 낮다. 함께 조사된 관광명소의 입장객 추이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자연과 정원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원관광은 위치적 특성상 도심과 떨어져 있어 자연스레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고 정원이 있는 지역에서의 소비로 이어진다. 또 정원을 가꿀수록 그 공간은 더욱 아름다워지기에 인구가 유입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선순환의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장성의 色다른 축제

우리나라에서 꽃을 주제로 한 축제는 너무도 많다. 하지만 장성이 의미 있는 이유는 ‘색’을 주제로 하는 유일한 축제라는 점이다.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노란색’을 주제로 꾸미는 꽃 축제는 정말 특별하다. 이를 지속적인 가치로 발전시켜 가려면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긴 3.2km의 꽃강을 좀 더 섬세하게 가꿔 질적으로 충실한 공간으로 꾸민다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또한 꽃과 함께 노란색 잎으로 이루어진 식물들을 한곳에 모아 보는 것이다. 장성에 가면 세상 모든 노란 식물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전 세계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장성에 찾아올 것이다.



장성만의 꽃을 가꿔보자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에 피어있는 10억 송이의 꽃들.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백일홍은 정말 아름답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꽃이 아니다. 왜 우리 꽃이 아닌 꽃을 심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야생화와 원예종의 차이에 있다. 모든 원예종은 최초에는 야생화였다. 야생화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기후와 환경,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원예종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야생화는 아직 심고 가꿀만한 원예종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들을 찾아내고 세계에 우리나라의 꽃을 알릴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장성이 해본다면 어떨까? 특히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많은 노란 식물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장성과 부안, 변산반도에서만 피어나는 노랑붓꽃과 장성과 정읍의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진노랑 상사화와 백양꽃이 있다. 백양꽃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있는 식물로 이름도 백양이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편백숲에 누울까 비자림에 앉을까

축령산의 편백숲, 백암산의 비자림. 장성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자림을 얘기하면 제주도의 비자림을 먼저 떠올리고 편백숲도 장흥, 남해를 비롯해 많은 곳에 있다.

하지만 장성의 숲은 장성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축령산 편백숲은 한 사람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꿔 일궈낸 조림숲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백암산의 비자림은 고려 시대 각진국사가 당시 유일한 구충제였던 비자나무 열매로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심고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비자림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해 식물분포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숲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고 있다. 부디 장성만은 단순히 숲이 좋으니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숲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보존하고 가꾸어 가길 바란다.



① ② ③

① 노랑붓꽃,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 분포 : 장성, 부안, 정읍, 개화기 : 4~5월

② 진노랑상사화 분포 : 장성, 전북 고창, 부안, 정읍, 개화기 : 7~8월

③ 백양꽃 분포 : 백암산, 개화기 : 8~9월 백암산의 백양사에서 최초 발견되어 백양꽃이라 이름 붙여짐

〈사진출처 : 네이버블로그 박원의 전원 이야기〉

與民同樂(여민동락)



愚溪 俞白濬 (우계 유백준) 서예가

- 법학박사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與民同樂(여민동락)은 맹자의 「양혜왕장구」 하편에 실려 있는 고사의 한 구절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하다’라는 뜻으로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통치자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

전원생활

김 재 현(장성읍 내기길)

• 前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

나이 들어 찾은 전원생활

엉겁결에 심어버린

감나무 살구 대추 석류나무

잘도 자라 제몫을 하는구나

완두콩 심어놓고 밭고랑에 앉아

파릇한 옥수수 새싹 바라보니

다정한 친구 만난 듯 반갑고

백구도 좋아라 꼬리 흔드는데

정이 드니 버린 돌도 정원석이 되고

꽃 피고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니

늘그막에 시골맛 알 것 같다

뒤란 상추 쑥갓 부추 베어다

소반에 나물반찬 만들어

노부부 겸상하며 정답 나누니

오늘도 하루가 무탈하구나





청소년들의 행복한 디딤돌!!!

장성군청소년수련관

풍성한 문화활동을 통해 푸른 꿈을 키우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장성군청소년수련관을 찾았다.



스트레스는 가라, 나의 끼를 보여줄게

도란도란 수다 나누기 좋은 Y-휴까페, 똑딱똑딱 만들어내는 목공소, 방과후 교실, 강당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노래방, 밴드실, 댄스실, 뮤직룸은 장성군 청소년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누르미르’

장성군과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지역 중학생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운영시간 : 주중 월~금 16:00~21:00, 토요일 월 1회 주말체험
- 대상 : 장성지역 중학교 1~2학년(40명)

청소년수련관 운영 안내

- 운영시간 : 주중(화~금) 9시 ~ 21시, 주말(토~일) 9시~18시
- 휴관일 : 월요일 정기휴관, 공휴일(공휴일이 토·일과 중복되는 경우 휴관)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문향고 옆) ☎(061)817-0923~4, 817-1318

청소년들이 꾸리는 문화한마당



매년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축제로 체험마당과 놀이마당, 동아리공연, 먹거리마당, 진로직업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장성청소년수련관 앞 차 없는 도로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청소년문화한마당은 장성지역 청소년기획단 40여 명이 7월부터 매주 회의와 토론을 하며 오롯이 그들의 생각과 열정으로 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언제나 네 편이 되어 줄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심리상담 및 위기지원활동

친구관계, 학업, 가족, 진로 등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돋는다. 가출,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긴급구조하고 의료·법률·임시보호 등의 지원으로 행복한 청소년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



1388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

지역사회 문화 활동과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장성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을 뜻하는 소나무 동아리를 모집해 활동공간과 워크숍,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도움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검정고시 교실과 사회진입을 위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문화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안내

- 운영시간 : 주중 9시 ~ 18시
- 문 의 : (061)393-1388/1387
- 청소년상담전화 : 1388 365일 24시간 이용





찬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

한 그릇 먹어야만 할 것 같은 추어탕(鮆魚湯)

아침 저녁 쌀쌀한 가을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면서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추어탕 한 그릇이 간절해진다. 지난 여름 더위에 기력을 잃었거나, 파고드는 찬바람에 몸이 움츠려든다면 뜨끈한 추어탕 한 뚝배기 어떨까?

추어탕의 주재료인 미꾸라지는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속을 보하며 설사를 멈추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요즘은 양식을 해서 사철 먹는 식재료가 되었지만 미꾸라지는 겨울잠에 들기 전인 7월부터 11월 말까지 노랗게 기름이 차오르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도 영양도 최고란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의미의 ‘추어(鮆魚)’라 부르는 듯 하다.

추어탕은 지역에 따라 조리법이 조금씩 다르다. 경상도는 미꾸라지를 삶아 으깨고 풋배추, 고사리, 토란대, 숙주나물을 넣어 끓이고 산초가루를 넣는다. 전라도는 미꾸라지를 푹 삶은 뒤 으깨 시래기와 된장, 들깨즙을 넣어 걸쭉하게 끓인다. 서울에서는 곱창이나 사골을 삶

아 낸 국물에 미꾸라지를 통으로 넣고 두부와 버섯과 함께 끓여내기도 한다.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끓이지만 몸에 보양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은 진배없다. 장성 곳곳에서 끓여낸 추어탕 한 그릇으로 건강한 가을을 지내자.



등나무집 장성읍 단풍로 492 ☎ 393-0064 (11:00~20:00)

주문과 동시에 내어주는 무심한 듯 달달한 무가 이곳만의 매력. 부드러운 시래기에 너무 진하지 않은 국물맛이 추어탕을 즐기지 않는 이도 한 그릇 뚝딱 헤치울 맛이다. 여럿이 함께 한 자리라면 이곳만의 이색메뉴 우렁쌈밥도 함께 맛보길 권해 본다. 싱싱한 쌈야채에 우렁이와 고소한 들깨가루가 어우러진 우렁쌈장을 얹느라 양손이 연신 바빠질 것.



호산식당 장성읍 미락단지길 32 ☎ 393-8449 (11:00~20:00)

맛집들이 모여있는 미락단지에 자리해 여러 해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곱게 갈아낸 추어와 들깨가루가 들어간 진한 국물을 한 술 맛보고 나면 밥 한 공기는 절로 사라진다. 갓 무쳐낸 배추겉절이와 고소한 나물, 함께 내어주는 밑반찬도 별미. 대표 메뉴인 통통한 살점들이 가득한 메기탕도 꼭 드셔보시길.



곳간추어탕 황룡면 뱃나드리로 168 ☎ 393-7112 (11:00~21:00)

추어탕 전문점이니 맛도 보기 전에 다진 고추와 밥 한 공기를 탕그릇에 넣고 본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들어올리는 수저마다 딸려오는 시래기가 푸짐하다. 뼈째 갈아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맛이다. 고기가 당긴다면 직접 기른 구찌뽕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푹 고아낸 구찌뽕 닭백숙을 예약해 보자. 한 마리면 원기충전 끝.

오래된 것이 주는 편안함과 따스함

다향만리

한적한 옛길에서 만나는 다향

새로운 것이 주는 산뜻함과 청량함이 있다면 오래된 것이 주는 편안함과 따스함이 있다. 다향만리가 딱 그런 곳이다. 1996년 처음 손님을 맞이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 오고 있다. 찻집에 자리한 나무 탁자며 의자, 모두가 함께 나이를 먹었다. 따라잡을 새 없이 달라지는 요즘, 변치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웬지 위안이 된다.





세월이 만들어낸 보약 같은 차

23년 전통으로 깊고 진하게 우려낸 원기보양 한방약탕과 대추차. 들어가는 재료 선별부터 찻잔에 담아 내기까지 정성을 함박 담았다. 입에 채 닿기도 전에 풍기는 진한 향내에 벌써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고 했던가. 이곳의 이색 메뉴인 옐로우 앙버터모나카를 추천해 본다. 옐로우시티 장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노란 모나카는 차와 어우러져 상상하지 못한 맛이랄까.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이어갈 터

혹여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어서 오세요~’ 유난히 밝고 낭랑한 목소리에 당황하지 마시길...

23년간 운영해 온 가족의 뒤를 이어 다향만리를 이끄는 젊은 주인장 이보라 씨다.

“새롭게 가게를 꾸미기보다는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요. 다시 오신 분들에게는 향수와 위안을 드리고 처음 오시는 분은 장성의 멋을 느낄 수 있게요. 밖에서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테이크아웃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다향만리의 차향과 함께 찬찬히 걸으며 장성 곳곳의 아름다운 가을정취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향만리(茶香萬里), 차의 향기가 만 리로 퍼져나간다는 가게의 이름처럼 오래도록 장성에 그 향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장성읍 전고개로 4

(061)393-1689 AM 11:00~PM 21:00(오픈 준비는 10시부터) 연중무휴





장성은 사과도 노랗다!

옐로우시티 황금사과





사과는 무슨 색?이라는 질문에 빨강을 떠올린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신소득 유망작목 육성으로 기준 과일과는 다른 색과 맛, 식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황금사과가 올해 장성군의 농가에서 첫 선을 보였다.

장성에 노란 사과가 있다?

노란 색깔 때문에 사과가 맞는건가 의심을 품었다가 매끈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향내는 분명 사과다. 혹여 시진 않을까 품은 의심은 한입 베어 문 순간 짹사라진다. 달콤하면서도 딱 상큼할 만큼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말로 다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쉬울 지경.

황금사과 맛있다?

장성 황금사과는 아삭한 식감에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과즙이 입안에 가득하다. 깎아두어도 쉽게 색이 변하지 않아 샐러드나 디저트, 과일주스로도 인기다. 다른 품종에 비해 재배환경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빨간 사과처럼 색을 내기 위해 잎과 가지를 자르고 바닥에 은박 반사필름을 까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농가 입장에서는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수확 시기도 빠르고 과육이 단단해 저 장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신

맛이 줄고 단맛이 더 강해진다. 일반 사과보다 30% 높은 가격이라니 경쟁력까지 갖추었다.

아침 사과는 금, 밤 사과는 독이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몸에 좋지만 밤에 먹는 사과는 되려 독이 된다는 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수면 전에 먹는 사과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다음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펩틴은 장기능을 활발하게 해 주어 장내 유독 성분을 흡수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 그 외에도 대장암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까지 효능이 정말 다양하다.

아침에 먹든 밤에 먹든 몸에 좋은 사과,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서양 속담도 있으니 하루에 사과 한 개는 꼭 챙겨 먹자.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보관소

여그가 전국에서 젤로 좋다는 거시기,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어라우

“전국서 어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젤로 잘한가 점수를 매겼는디,
작년서부터 2년 연속으로 우리 군이 최우수사업소로 인정받았다 안하요.
상사업비로 3억 원까정 타브렸으니 아주 그냥 경사가 나브렸소.”

전국 최우수 농기계임대사업소 선정, 상사업비 3억 쾌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우리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전국 141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됐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낸 다양한 서비스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상사업비 3억 원은 노후된 농기계 교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철저하게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임대서비스

장성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철저하게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기계를 운반할 화물차량이 없거나 고령의 농가를 위해서는 원하는 곳까지 배달한다. 임대료 또한 농기계 가격의 0.2~0.3% 수준으로 1천 원부터 최고 6만 4천 원까지 저렴하기까지 하다. 거기에 카드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약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편리함까지 더했다.

농기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농촌의 고령화와 부족한 일손으로 농기계 의존은 높아질 터. 군은 2016년부터 서부와 북부에 임대사업소를 추가하여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지역 내 삼각구조를 만들었다. 덕분에 연간 1만여 대가 이용될 정도로 어디서든 다양한 농기계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금년 말 농기계 종합교육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과 안전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용카드로 임대료를 결제하는 농업인



운영 안내

사업 소명	평상시		농번기		주 소	전화 (061)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중부권 본소	07:00 ~19:00	08:00 ~18:00	07:00 ~20:00	08:00 ~18:00	장성읍 단풍로 200	390-8512
서부권 분소	07:00 ~19:00	-	07:00 ~20:00	08:00 ~18:00	삼계면 영장로 1620-82	390-7191
북부권 분소	07:00 ~19:00	-	07:00 ~20:00	08:00 ~18:00	북이면 방장로 950-10	390-7195

※ 농번기 : 4~6월, 10월~11월

전 연령층 독감 예방 무료접종 확대

흔히들 증상이 심한 감기인 독감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독감과 감기는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이 모두 다르다. 특히 겨울철 독감은 예방접종을 맞으면 60~90% 예방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

어린이부터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모두 무료

군은 지난해 초등학생까지 독감 무료 접종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임신부와 전입 5년 이내 농업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50~64세 이하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등도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유료접종을 희망하는 일반 주민은 장성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유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독감예방접종은 언제 맞아야 하나요?

예방접종은 약 2주 후에 항체가 생겨 면역효과가 나타난다.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독감이 유행하니 10월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기 전에 예방접종으로 겨울 건강을 지켜보자.

접종대상 및 일정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병 · 의원	• 생후 6개월 ~ 만 12세어린이	처음 접종자 2019. 9. 17.(화) ~ 2020. 4. 30.(목)	무료
		매년 접종자 2019. 10. 15.(화) ~ 2020. 4. 30.(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19. 10. 15.(화) ~ 2019. 11. 22.(금)	
	• 임신부	2019. 10. 15.(화) ~ 2020. 4. 30.(목)	
보건소 보건지소	• 생후 6개월~만 12세어린이	2019. 10. 22.(화) ~ 백신소진시까지	무료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50~64세 이하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 만 50~64세 이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귀농인 등	2019. 10. 28.(월) ~ 백신소진시까지	유료 (7,600원)
	• 관내 희망 주민	2019. 10. 28.(월) ~ 백신소진시까지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90-8332,8337

아이키우기 좋은 장성! 아이돌봄서비스 군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유아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서비스이다.

정부지원 외 장성군이 부담금 추가지원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4인 가족이 월 40시간을 이용할 경우 최대 38만 원 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한 가계 부담이 적지 않다. 군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 3개월~만 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거주지가 장성군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소득 유형별로 40~100%이며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소득기준(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
75%(3,460천 원 이하)	100%
120%(5,536천 원 이하)	60%
150%(6,920천 원 이하)	50%
150%초과(6,920천 원 초과)	40%
셋째 이상 다자녀는 소득기준 무관	100%

※ 다자녀 서비스 이용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셋째 이후 아이에게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종일제 돌봄, 만 8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시간제돌봄 대상자는 지원 제외

아이돌봄센터 061)392-0211 / 주민복지과 061)390-7411



서포터즈 취재일기

♥ Q ▶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
장성기차 갤러리

3기 이문희

• • •

기차를 갤러리로 만든다는 생각은 누가 했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호기심 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서예, 침실 등, 여리 작품들이 즐비하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작품감상하니 장성의 노란불이 기차 안을 환하게 비춘다.

2019. 8. 31.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5

♥ Q ▶

백양사 숲체험
백양자연관찰로 추천합니다!!

3기 박현숙

• • •

가을이 되면 우리지역 명산 백양사에는 애기단풍이 절정에 이르죠? 벌써 기대되는 돼요. ~ 장성 백양사에는 가족들과 함께 거닐어 보기 좋을 백양자연관찰로가 있답니다. 가족과 자연에서 놀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시다면 숲놀이터나 숲체험 추천합니다.

2019. 8. 28.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Q ▶

장성군청 근처에 위치한
'양송식당' 입니다!

3기 김승현

• • •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 얼큰하고 뜨끈한찌개가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요~ 장성군청 골목에 들어오시면 양송식당이라고 대문에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얼큰한 생태탕에 오징어젓갈까지 너무 맛 있는 '양송식당'입니다.

2019. 8. 27.
장성군 장성읍 매화2길 12

♥ Q ▶

노란꽃잔치에서 남긴 한 컷

장성군청 꽃길만 걸어요

장성의 숨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성군 SNS 서포터즈들.
그들이 소개하는 장성의 축제, 관광명소, 맛집들을
함께 가볼까요?



사람의 생김새와 삶이 다르듯 자연공동체인 각 마을마다 전해내려 오는 이야기가 다르다. 전라남도에서는 마을마다 역사적 가치 있는 마을이야기를 발굴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이야기박람회”를 열었다.

2019. 9. 12.



일조량이 풍부하여 과수와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장성은 사과재배의 최적지로 수십년간의 재배 기술 축적과 자연환경으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답니다. 장성사과 드시고 예뻐지세요~

2019. 9. 20.

♥ Q ☎
일본군 피해자 기림의 날!
3기 김지유

혹시 여러분들은 2019년 8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들 광복절 전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저희 장성에서도 위안부기림의 날을 맞이하여 2019년 8월 14일 장성역 안근과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평화음악회&촛불집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 9. 15.

♥ Q ☎
장성노란꽃잔치 전체 즐기기!
3기 임재율

총 5만 평에 10억 송이 꽃이 장관을 연출하는 황룡강노란꽃잔치를 어떻게 즐겨볼까? 정월 여기저기에 마련되어 있는 벤치에 앉아 깜찍한 표정으로 추억을 찍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룡강에서 천천히 걷고, 보고, 체험하고, 먹고 보낸다면 기쁨이 두 배!

2019. 10. 7.

장성군 장성읍 황룡강변 일대

몸에 좋은 영양덩어리

호박 이야기

가을철 어디를 가나 집 마당이나 밭고랑 사이에 뻗어 있는 호박 넝쿨과 호박잎 아래 숨어 있는 호박 한 덩이. 호박은 고향과 어머니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애호박은 뚜꺽뚜꺽 썰려 된장찌개와 호박전이 되고 호박잎은 뜨거운 김에 숨이 죽어 쌈거리가 된다. 누렇게 잘 익은 호박은 골방 한 귀퉁이를 차지하다 겨우내 호박 죽으로 가족들에게 내어졌다. 벼릴 것 하나 없이 여름부터 겨울 까지 우리네 식탁에 자주 오르는 호박에 대해 알아보자.

이 인 성

前)대한한약협회학술위원장

現)사거리한약방





호박은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기호식품으로 한의서에는 남과(南瓜)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단맛에 따뜻한 성분으로 독이 없다고 하였다. 효능으로 몸을 보하고 기운을 나게 한다고 하였으며 주의 사항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는 먹지 말라, 또 양고기와는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였지만 보양재료로 많이 쓰인다. 호박의 살은 물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호박의 부분별 효능에 대해 살펴보자.

호박 살의 효능

- 
- 이뇨 작용이 있어 몸이 봇는 부종병과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된다.
 - 임신 초기에 좋은 식품이며 출산 후의 모유 부족과 기력 회복에 좋다.
 - 빈혈 치료와 자양강장, 해독작용이 있고 병후 회복기 환자의 기력 회복에 좋다.
 - 위 기능 강화작용과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 항암작용, 변비증, 당뇨병, 동맥경화증, 저혈압을 개선하는데 좋다.
 - 신경통이 잦거나 손발이 차갑고 저리는 병증이 있을 때 좋다.
 - 돼지고기와 같이 먹거나 또 꿀과 같이 먹으면 몸에 더욱 좋다.

호박 씨의 효능

- 관절염, 전립선, 숙면에 도움을 준다.
- 오메가3가 풍부하여 저혈압 두통 당뇨와 심혈관을 좋게 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률을 줄인다. (하루에 20그램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

호박 뿌리의 효능

- 임질 황달(간염) 이질 모유 부족에 좋다.
-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나 가슴이 아플 때 좋다.

호박 어린잎의 효능

- 이질과 다친 상처치료에 좋다
-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
- 눈, 구강, 변비, 피로 해소 등에도 좋다. 다만 몸이 많이 차고 위장이 튼튼하지 않은 체질은 많이 먹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 피부미용과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

*참고서적 –동의보감 동의학대사전 현대식품학

한컷 뉴스



낭만의 계절 가을, 장성문화예술회관이 준비한 공연여행

지난 9월과 10월,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가을의 감성과 잘 어울리는 공연이 잇따라 선을 보였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향우들과 군민들을 위해 발라드의 황제 변진섭과 우리 군 출신 김수찬의 'YELLOW 감성콘서트'가 관객의 마음을 녹였다. 이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 선정으로 마련된 뮤지컬 '하모니'가 선보이며 공연 내내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들어봐!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노래를...

뮤지컬

하모니

musical harmony

2019년 10월 15일 (화) 저녁 7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 가격: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110-61100-8475, 6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home/culturecenter>
관람료 15,000원 주최: 장성군립문화예술회관, 주식회사 해오니 컴퍼니 예매 10월 7일 9:00시부터 판매처: 티켓·방탄
주관: 장성군립문화예술회관, 주식회사 해오니 컴퍼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축령산 '힐링관광 시대' 선포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막식이 있었던 10월 5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축령산 편백숲에서 행사가 있었다. 군과 주민들이 축령산의 명성에 걸맞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관광'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선포하였다. 이날 주민들은 장성의 보물 축령산을 이름 담고 깨끗하게 가꿔가는데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축령산 편백숲을 찾은 참석자와 관광객들과 함께 오색 비빔밥을 나눠먹는 행사를 가졌다.



제42회 장성군민의 날 기념, 2019 장성군민의 상 시상

지난 10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막식에서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장성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함께 개최됐다. 장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공헌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올해 '장성군민의 상'은 향토 방위 분야 김상복(삼서면) 씨와 농업분야 전준섭(남면) 씨가 수상했다.



점포 임대료·대출이자 차액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돋기 위해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점포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에 대해 11월 중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군은 1,1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해 왔다.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함께 즐긴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회합과 소통을 위한 ‘한마음축제’가 지난 10월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렸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 각 나라에서 온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전통의상 패션쇼와 백일장, 먹거리 체험행사 등을 선보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광주전남 최초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건립 기념비 ‘제막식’ 가져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의 건립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이 지난 10월 개최됐다. 누리타운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주거와 복지, 의료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현대식 공공노인복지주택이다. 실버복지 1번지 장성군은 그 명성에 맞게 다양한 어르신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SNS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우리군은 ‘2019년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와 함께 이용자와 활발한 소통을 늘려온 점과 흥미로운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장성군 명예 읍·면장 위촉

대학교수, 언론인, 전문경영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장성 출신 11명이 지난 10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되었다. 이날 명예 읍·면장은 각 읍·면에서 농업시설과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건의 청취 등 현장업무 일정도 소화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성의 주요 정책과 축제, 문화행사 등을 홍보하며 군정의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장성군 “새내기 공무원의 첫출발을 응원합니다”

지난 10월 군청 아카데미홀에서는 신규공무원들의 특별한 임용식이 있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축제장 일원을 돌아보며 엘로우시티 장성을 체감했다. 기존의 임용식과 달리 임용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하고 엘로우시티 장성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신규 공무원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토방낫추기 사업, 금년도 사업 목표량 완공 임박

군은 올해 어르신들의 효자 노릇을 특특히 하고 있는 토방 낫추기 사업을 예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여 11월 내 목표량인 430건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방낫추기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색 복지 사업인 만큼 대내외적으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전라남도 건축행정 전시화 최우수기관’에 장성군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제3회 무등행정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 수상

우리 군의 행정 혁신시책이 또 한 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주관하는 ‘제3회 무등행정대상’에서 우리군은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단체 주요 정책의 우수 성공사례를 평가하는 이 대회에서 그간 장성군이 펼쳐온 ▲토방 낫추기 시책 ▲어르신 효도권 지원 사업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유치 건립 등의 혁신적인 성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선정... 국·도비 114억 원 확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의 적수발생을 예방하고 누수를 줄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165억 원(국·도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2020년부터 5년간 노후상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주관 ‘2020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도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 원(국·도비 14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 재정평가 ‘종합우수’ 지자체 선정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게 됐다. 우리 군 재정건전성 분야와 관련해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 비율이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2015년에 이미 순수 군비채무를 모두 상환했고, 2018년 초 수익자 부담채무마저 조기 상환해 채무 제로(0)화를 실현한 바 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개 선정 국비 29억 확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우리군의 신규사업이 선정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의 기초 인프라 투자와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국비 28억원)과 시군역량사업(국비 1억 4천만 원)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2억원 규모로 추진하게 된다.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운영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는 지난 7월 25일부터 5일간에 걸쳐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및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지난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동섭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당한 근거 없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장성군민에게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일본여행과 일본산 상품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운영

장성군의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을 처리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 행정자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의결



◎ 산업건설위원회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지역현안사업 검토를 위한 견학

지난 9월 18일 장성군의회에서는 장성군 앵무새 특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류 테마파크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관광·경제 효과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운영현황과 관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시설을 둘러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남 시·군의회 의원 연수

장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대안과 의원 상호간 역량강화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 예산정책협의회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수원시의회 우리군의회 방문

장성읍 ○



장성읍, 군민체육대회 2회 연속 우승

제42회 장성군민의 날을 기념한 군민 체육대회가 지난 9월 24일 개최됐다. 읍면 대항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입장식이 눈길을 끌었다. 대회의 종합우승은 장성읍, 준우승은 삼계면이 차지했다. 지난 해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컵을 차지한 정재복 장성읍장은 “승부에 상관없이 읍민들과 단합하여 즐기자는 마음이었는데 뜻밖에 올해도 우승까지 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진원면



진원면 새마을지도자회 다문화가정 도배 봉사

지난 10월 10일 진원면 새마을지도자회는 다문화가정에 봉사로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 진원면 새마을지도자회 손득수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함께 베풀고 있는 봉사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했다.

제25회 민속놀이 한마당대회 진원면 종합 우승

장성군은 민속놀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지난 10월 11일 장성 공설운동장에서 제25회 민속놀이 한마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진원면은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단체줄넘기 종목 우승을 수상하였고, 육놀이와 공기놀이 종목 준우승을 수상하여 종합우승을 했다.

행사는 각 면의 주민으로 구성하여 남녀노소가 어우러진 흥겨운 대회로 즐거움을 더했다. 종목별 시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대행사로 떡매 체험을 운영하는 등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를 통해 많은 주민과 향우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성읍 복지기동대, 생활밀착형 서비스

장성읍 복지기동대는 지난 8월 8일 홀로 사는 어르신 7곳 가구를 방문해 낡은 방충망을 자동방충망으로 교체했다. 취약계층의 생활불편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기, 수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 출범한 복지기동대의 활동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유택 기동대장은 앞으로 장성읍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에 소소하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드림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남면



새마을협의회 사랑愛 주거환경 개선

매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남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9월 3일, 주택노후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월곡리 금월마을, 덕성리 신안마을의 주택 2곳에서 낡은 도배지, 장판교체작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동화면 ○



동화면 복지기동대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동화면 복지기동대 박균수 대장을 비롯한 기동대원 6명은 지난 10월 10일 관내 어려운 어르신의 집을 찾아가 집수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곰팡이 편 벽지와 노후된 장판 등을 교체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도움의 손길을 나눴다.



동화면 경로당에 쌀과자 기부활동 펼쳐

광주 광산구 소재 더하이 베베당은 지난 9월 25일 동화면 관내 경로당에 쌀과자 10kg 50포대를 기부하였다. 업체 직원인 박수길 씨는 前 6395부대 주임원사로 군복무를 하면서 동화면과 맺어진 인연으로 금번 기부 대상지로 동화면을 선정하였다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삼계면

삼계면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정화 활동

지난 9월 5일, 삼계면 바르게살기 위원회(위원장 고병주) 회원과 삼계면 직원 총 30여 명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금광아파트 앞 사거리 상징탑 주변에서 정화활동을 했다.



삼계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실시

삼계면 이장협의회(회장 박홍렬)는 지난 9월 19일부터 3일간 부부동반으로 약 40여 명이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제주도의 관광지를 돌아보며, 현재 조성 중인 상무평화공원 등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눴다.



삼서면



2019 추석맞이 태청골 가요제 열려

한가위를 맞아 2019 태청골 가요제가 삼서면청년회(회장 이영) 주관으로 삼서권역운동장에서 열렸다. 사회자의 구수한 입담으로 막을 연 가요제는 잔디깎기 기계, 가전제품 등 풍성한 상품이 마련된 가운데 각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노래실력을 뽐냈고, 미스트롯 정미애 등 초대가수와 불꽃놀이로 고향을 찾은 향우들과 삼서면민 모두가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황룡면



황룡면 황룡시장 페스티벌

2019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기간 중, 축제장과 인접한 황룡시장에도 흥겨운 축제가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황룡시장 페스티벌은 장날에 맞춰 시장 주차장 주무대에서 진행됐다. 빛나라, 양산박, 불태산, 공세경 등 지역가수들의 공연과 신명나는 각설이 공연, 군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페스티벌은 황룡시장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삼면 ○



제23회 서삼면민의 날 행사 개최

지난 한가위에 서삼초등학교에서는 제23회 면민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장, 기관사회단체장, 향우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체육행사와 면민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면민이 지역사랑으로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서삼면 주민자치센터 '별빛 나눔 공방'

주민자치센터는 2019년 주민참여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200백만 원의 지원금으로 도예품을 만들어 나누는 '별빛 나눔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20여 명이 참여하여 직접 만든 도예품을 경로당 31곳에 전달했다. 문화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북이면



제20회 한가위 북이면민 노래자랑 개최

북이면 청년연합회(회장 박성주)가 주관한 제20회 한가위 북이면민 노래자랑이 지난 9월 13일 사가전통시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향우와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북이면청년연합회 등 행사 참여 단체에서는 종료 후 광장 청소와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드리는 등 면민의 화합과 결속을 드높였다.

북일면



제1회 북일면 어르신 윷놀이 대회 개최

지난 8월 백중 날, 북일초등학교 32회 졸업생과 장성군 노인회 북일분회가 함께 준비한 제1회 북일면 어르신 윷놀이 대회가 열렸다. 기관사회단체장, 향우, 주민 등 140여 명이 함께 정답을 나누고 윷놀이를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고된 농사일로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되길 바랬다.

북하면



성암마을 이동조 님, 대성경로당에 표지석 기부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성암마을 경로당이 리모델링을 막 마친 백중일, 마을 경로당에 현판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던 이동조 어르신이 300만 원 상당의 표지석을 통해 크게 기부하여 마을의 경사를 더하였다. 9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등 주위에 귀감이 되어 노인의 날 행사 때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제20회 북하면민 한가위 노래자랑 개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향우들과 마을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제20회 북하면민 한가위 노래자랑이 약수초등학교에서 열렸다. 북하면 체육회(상임부회장 박충열)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초청가수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 푸짐한 경품이 더해져 이 날의 축제장을 더 화려하게 빛냈다.

나눔마당



이웃사랑 기증 · 봉사활동

1. 장성군귀농인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상록원 환경정화 봉사
2. 영산강유역환경청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 생필품 전달, 봉사활동
3.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취약계층 20여 가구 노후 전기설비 점검보수 봉사,
소화기 100여 대 기증
4. 장성군 여성지원봉사회
홀로 계신 어르신 230세대에 김치와 떡 전달
5. 네오마루 선풍기 50대, 1004박스 170개 기증
6. 장성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일)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생필품과 후원금 전달
7.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봉사
8. 상무대보병학교 추석명절 경로당 위문품 전달
9. 직장새마을협의회(회장 정재복) 홀로 계신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봉사



(재)장성장학회 장학기금 기탁

1. (주)바른환경연구소 100만 원
2. 장성읍 고상훈 500만 원
3. 서삼면 주인영 · 김청자 500만 원
4. 제주도 이병갑 500만 원



이병갑
남면 월정리 출신으로 前 재제주 향우회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매년 5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장성군 추천도서

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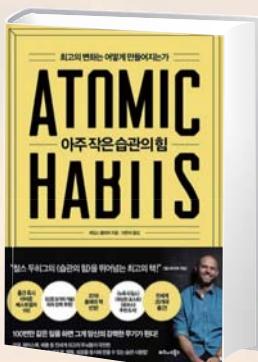


정적

배철현 저/ 21세기북스/ 2019

나를 유혹하는 외부의 소리에 복종할 것인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에 친용할 것인가?
고개를 한 번 세우면 미세한 소리에
우울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적』은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경청’의 핵심은 타인의 소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고요한 울림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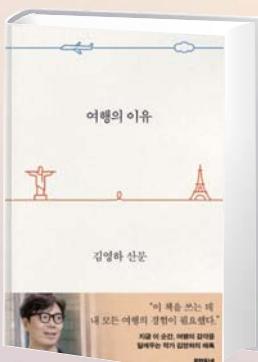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저/ 비즈니스북스/ 2019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삶을 바꿨다!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선수였던 저자는 연습 중 동료의 야구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당하는 큰 사고를 당했고, 걸을 수조차 없었던 저자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찾아 그것을 반복하자고 마음먹었다. 그 후 매일 걷기 연습을 해서 6개월 만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6년 후에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가 되었다. 그 후 자신을 인생의 나라에서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된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생물학, 뇌과학, 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집약해서 습관 하나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제시한다.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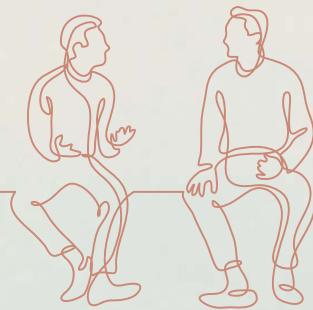


여행의 이유

김영하 저/ 문학동네/ 2019

여행의 감각을 일깨우는 소설가 김영하의 매혹적인 이야기. 꽤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던 저자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아 써내려간 아홉 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지나온 삶에서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해온 저자는 여행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행의 이유를 찾아가며 그 답을 알아가고자 한다.

장성문화예술회관 공연 · 영화 소개



〈뮤지컬〉 궁작 두 번째 이야기 – 얼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석 매진 기록
-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 봄봄, 고무신의 옴니버스로 구성해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한국적 창작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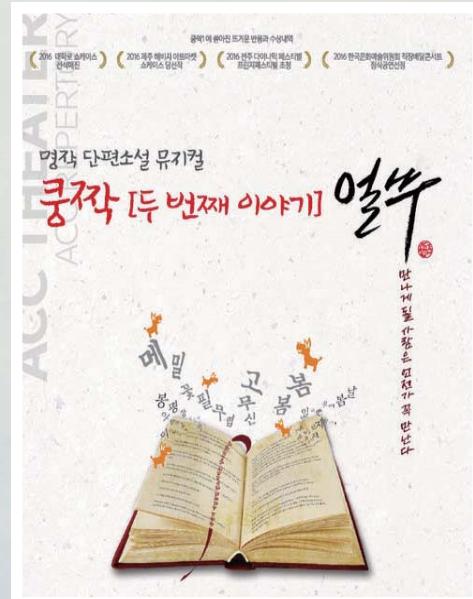
공연 : 2019. 11. 12.(화) 19:00 (100분)

예매 : 2019. 10. 31. 09:00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4,000원(학생, 경로, 장애인 등 50% 할인)

관람연령 : 초등학생 관람가



〈콘서트〉 춘하추동—남상일과 함께하는 ‘디톡스콘서트’

- ‘국악’, ‘트로트’, ‘대중가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디톡스 콘서트
- 출연 : 남상일, 박구윤, DK

공연 : 2019. 12. 3.(화) 19:00 (90분)

예매 : 2019. 11. 22. 09:00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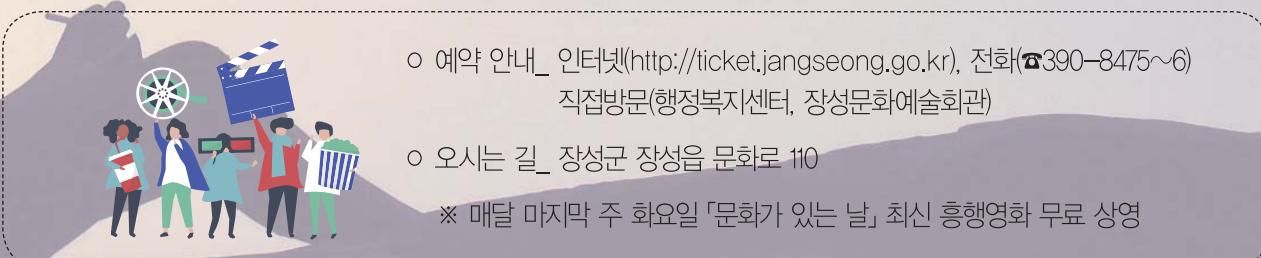
관람료 : 5,000원(학생, 경로, 장애인 등 50% 할인)

관람연령 : 만 4세 관람가

- 예약 안내_ 인터넷(<http://ticket.jangseong.go.kr>), 전화(☎390-8475~6)
직접방문(행정복지센터, 장성문화예술회관)

- 오시는 길_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문화가 있는 날」 최신 흥행영화 무료 상영



가을겨울철 산불 예방 안내

소중히 가꿔온 자연과 재산, 생명을 산불로부터 보호합시다.

◎ 잘못 알고 있는 논 · 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 논 ·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으며 산불의 주요한 원인(산불 원인의 31%)으로 매년 12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년간 논 ·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4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대부분(39명)이 7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 산불로 확산될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대 혼자 진화하면 안됩니다.
- 숲이나 숲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말고 농사로 발생한 부산물은 모아 두었다가 퇴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위험이 없는 지역에서도 농사를 위한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며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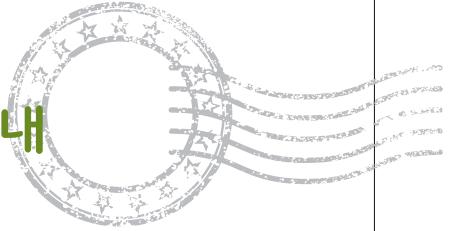
◎ 실수로 낸 산불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 061)390-7425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안내



◎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입니다.

◎ 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18. 5 ~ 2019. 12.
- 지원대상 : 길이 9m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 특수자동차
- 신청절차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 후 군청 교통정책과로 개별 신청
-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지원

◎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단속 실시

- 미장착 적발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담당 061)390-7373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가 실시

2019~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가 접종기간 : 2019. 9. 18.(수) ~ 예산소진 시 까지

※ 올해 못 맞으신 분들은 내년도에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 전액 무료,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 지소에서 접종

◎ 만 65세 이상 주민 : 접종비의 70% 지원(105,000원)

-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위탁 병 · 의원 21개소에서 접종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90-8332, 8337

장성군립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신청
- ◎ 수 강 료 : 무료(단 재료비는 별도)
- ◎ 모집기간 : 선착순(정원 충족시 마감) ※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문의 061)390-8492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인원	횟수	강사명	주요내용
한국화	성인	9.17.~12.10. (화 10:00~12:00)	15	12(3개월)	오윤석	매화 등 한국화 채색
문예창작	성인	9.18.~12.11. (수 10:00~12:00)	15	12(3개월)	박형동	시, 수필 쓰기와 합평

※ 리모델링 공사중으로 완료 후 다양한 문화교실 추진 예정

북이도서관 문의 061)390-8531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인원	횟수	강사명	주요내용
영화 속 논술이 쑥쑥	초등 1~6	9. 16 ~ 12. 2 (월 17:00~19:00)	15	12	백정애	영화를 깊이 있게 감상하고 협동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교육
토탈공예	초등 1~6	9. 17 ~ 12. 3 (화 17:00~19:00)	15	12	송수경	공예의 기본 교육과 작품활동을 통한 창의성과 집중력 향상
흥미진진 스토리텔링 한국사	초등 4~6	9. 18 ~ 12. 11 (수 16:00~18:00)	15	12	원태경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 사고력 향상
책으로 톡톡 생각이 쑥쑥	초등 1~3	9. 16 ~ 12. 12 (목 17:00~19:00)	15	12	김민선	책을 통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
책으로 만나는 세상(슬로리딩)	초등 4~6	9. 19 ~ 12. 12 (목 17:00~19:00)	15	12	정순란	독서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갖게 하고 독서에 대한 중요성 교육
퀼트	성인	9. 16 ~ 12. 2 (월 10:00~12:00)	10	12	이 진	손바느질로 생활소품 제작
서예교실(예서)	성인	9. 17 ~ 12. 3 (화 10:00~12:00)	10	10	김홍식	서예를 이해하고, 인격 수양에 도움 되는 예서 배우기

삼계도서관

문의 061)390-8521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인원	횟수	강사명	주요내용
이데아 점프 베이비(A)	유아 16~30개월	9. 19 ~ 12. 12 (목 10:00~11:00)	20	12	정경미	아이들의 오감활동을 자극한 놀이 활동을 통해 창의력 향상
이데아 점프 베이비(B)	유아 5~15개월	9. 19 ~ 12. 12 (목 11:00~12:00)	20	12	정경미	
그림책 상상놀이터	6~7세	9. 21 ~ 12. 7 (토 13:00~14:00)	12	12	김민선	그림책과 친밀감을 갖게 해 독서습관 만들기
어린이 토탈공예	초등1~6	9. 19 ~ 12. 12 (목 16:00~18:00)	15	12	정현지	다양한 재료와 부자재를 통한 조형활동
그림책 과학교실(A)	초등1~2	9. 21 ~ 12. 7 (토 14:00~15:30)	15	12	유현주	책과 연계한 과학 활동으로 쉽게 과학 접하기, 간단한 실험으로 과학원리 이해
그림책 과학교실(B)	초등3~4	9. 21 ~ 12. 7 (토 15:30~17:00)	15	12	유현주	
신나는 독서놀이	초등1~2	9. 21 ~ 12. 7 (토 15:30~17:00)	15	12	정순란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
책으로 만나는 세상(슬로리딩)	초등3~5	9. 21 ~ 12. 7 (토 14:00~15:30)	15	12	정순란	
청소년 독서동아리	청소년	9. 21 ~ 12. 7 (토 09:00~11:00)	15	12	고은정	독서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 찾기
알기쉬운 중국어	성인	9. 16 ~ 12. 2 (월 10:00~12:00)	15	12	박종님	중국 여행 시 물건을 살 수 있는 회화 중심 수업
감성 자극 손뜨개	성인	9. 16 ~ 12. 2 (월 10:00~12:00)	15	12	노현진	기본뜨개 방법을 배워 원하는 작품 만들기
핸드 드립 커피	성인	9. 17 ~ 12. 3 (화 10:00~12:00)	15	8	이태연	커피에 대한 알아보기
부동산 쉽게 알기	성인	9. 17 ~ 12. 3 (화 19:00~21:00)	15	12	홍성화	부동산 관련 상식 알기
퀼트	성인	9. 18 ~ 12. 11 (수 10:00~12:00)	15	12	이 진	손바느질로 생활 소품 만들기

진원작은도서관

문의 061)390-8496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인원	횟수	강사명	주요내용
영어와 놀아요	초등 1~4	9.17.~12.10. (화 17:00~18:30)	15	12	김선숙	영어 동화책을 함께 읽고 놀이를 통해 즐겁게 영어 습득
책과 함께 하는 신나는 미술여행	초등 1~3	9.20.~12.13. (금 17:00~18:30)	15	13	정현지	미술활동을 통해 사고의 폭 및 포용력 향상

삼서드림빌작은도서관

문의 061)390-8496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인원	횟수	강사명	주요내용
한자공예	일반	9. 18. ~12. 11. (수 10:00~12:00)	15	12	김은희	한자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하고 생활소품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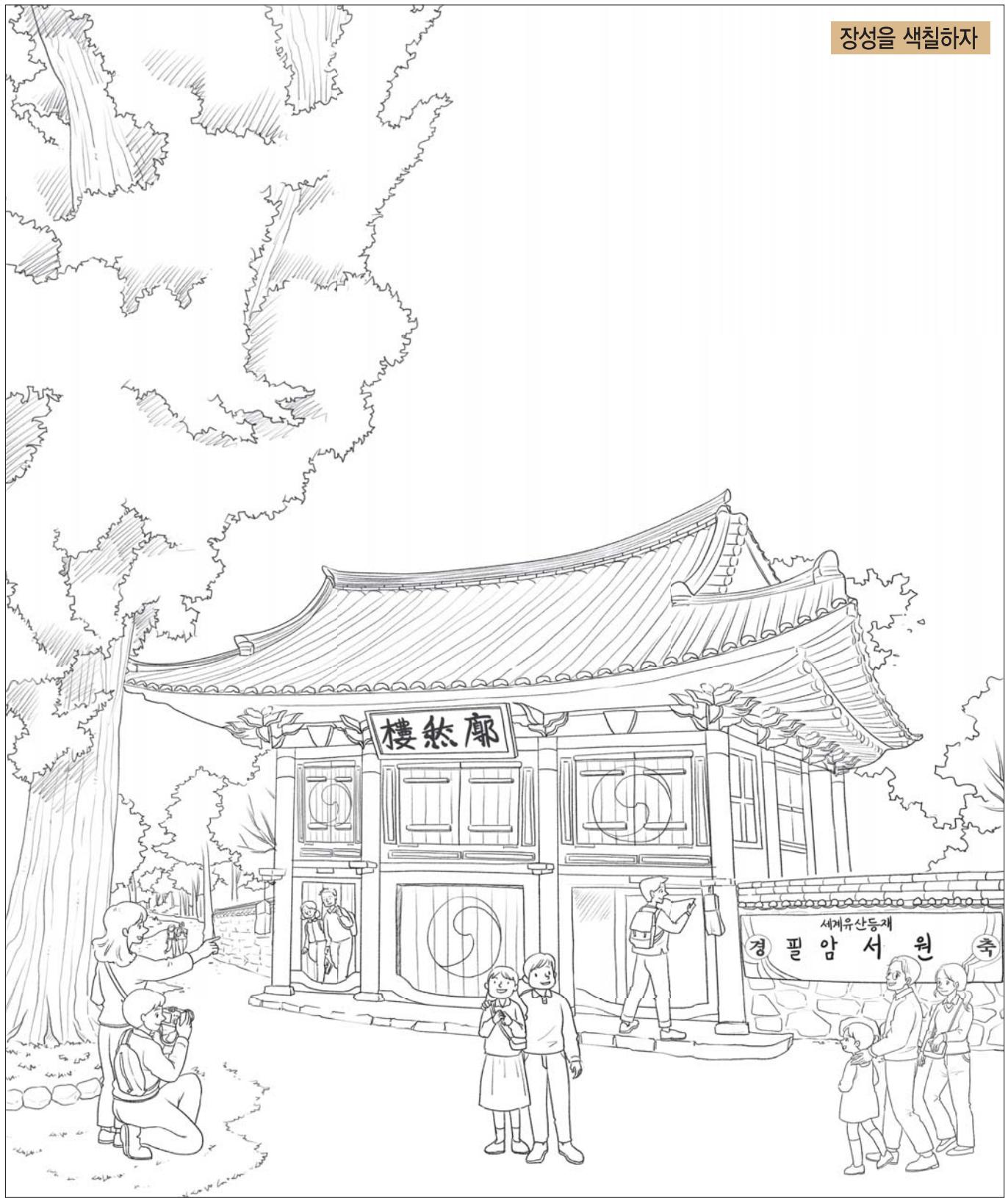


갈어가는 백양사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올해 백양단풍축제는 최근 국내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백양사의 단풍은 곱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성을 색칠하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의 짙어가는 가을 모습

〈장성21세기〉 표지를 나만의 색으로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색과 개성으로 완성된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이름,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세요. 다음호에 선정된 작품을 게재합니다.

제출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①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에 완성된 그림을 올리고 #장성21세기 #장성을색칠하자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 ② 〈장성21세기〉 이메일(noproblem777@korea.kr)로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세요.



정선의
여름
여름

